

Univera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Vol. 001 / April 5, 2004
창간호



일관성

일관성 있게 사람들을 대하라
 일관성을 지니면 관계가 투명해 진다.
 또, 누구나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일관성을 지니면 더욱 행복해 질 것이다.
 매번 "이번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더리 워튼, 로니 하퍼의 《그래 벅속 탈출하기》중에서 -

일관성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작은 물살에 흔들리고 날씨가 따라 변하면
 금방 믿음을 잃게 됩니다.
 일관성은 리더쉽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일관성을 잃으면, 뒤따르는 사람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일관성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어야 그 사랑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Univera Way



유니베라웨이(Univera Way) 창간호
 발행인 이병훈
 발행처 (주)남양
 편집기획 (주)남양 경영전략본부
 편집 오경아
 편집 디자인 Intercube Design
 인쇄 정광인쇄

Univera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CONTENTS

02 > 책 머리에서 - 창립 28주년 기념사와 소식지 발간에 대한 소감문

04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세계적인 기업 현지법인의 숨은 주역들

06 > 2020년 4월 5일

08 > 중국에서의 첫 발을...미래를 보며

12 > 러시아에 첫 발을 디디며

연구하는 기업

14 > 이달의 연구사원 - 유니젠 허영문 연구원

16 > 명사칼럼 - 변화에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원칙

사랑하는 기업

18 > 서로 다른 공간의 같은 시간

20 > 문화행사 탐방 - "갈갈이 삼형제"에서 "태극기 휘날리며"까지...

22 > 피자토크 - 나 이럴때 꿩고, 나 이럴때 녹는다.

24 > 동기사랑 - 통하였느냐!

26 > 나도야 간다 - 일본 기행편

28 > 회사내 이런소식 알고계셨나요?

- 1) ECONET 통신원 수첩 2) ECONET 전사 소식
- 3) 새 식구 소식 4) 동호회 소식
- 5) 경조사 소식 6) 생일자 소식 (4~5월달)

36 > 편집후기

61 > 특별 창간호 기념 "유니베라 웨이" 6행시 응모해 주세요!

English Version

38 > Foreword - Celebrating the Birth of *Univera Way*

40 > ECONET News Network - News from ECONET Subsidiaries

42 > April 5, 2020

44 > A Foothold in China ... Looking Ahead to the Future

48 > Taking the First Step Into Russia

50 > Researcher of the Month

Unigen R&D Researcher Youngmoon Heo

52 > What's New

- 1) Tidbits from ECONET Correspondents 2) ECONET-Wide News!
- 3) Club Activity News 4) New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58 > Editorial Comments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변치않는 기업철학의 실현, 그리고 세계천연물 산업의 영원한 1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창립 28주년과 진실된 일을 위해 오직 한길만 가겠다는 유니베라(Univera)의 의미를 담은 유니베라 웨이(Univera Way)의 발간을 축하하며...

매년 이맘 때면 우리 회사가 정말 좋은 날에 창업 했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것은 아마도 어린 나무가 새로운 토양을 만나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생명체로 자라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주는 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의 생명을 다루는 우리회사가 이렇게 자연의 생명력이 가장 크게 솟아 오르는 계절에 창업을 하고 매년 그 힘과 더불어 창업의 비전과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기업의 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 정도만을 살펴보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흥망의 연속선상에서 줄타기를 해왔음을 쉽게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성공이나 좌절은 한 기업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치 있는 기업철학, 명확한 미래비전,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강인한 생명력으로 매 시각 운명적으로 닥쳐오는 수 많은 실패와 성공들을 적절히 큰 그릇에 용화해 내며 긴 호흡을 쉬는 기업이 부침의 장벽을 뛰어 넘어 장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업 후 지난 28년의 시간은 우리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는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변치 않는 기업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몇 백 평 되진 않았지만 철학과 사명으로 일구어진 인천 효성동 알로에 발을 한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중국, 러시아에 수직 계열화된 천연물산업기반으로 승화, 발전시켰습니다. 세계가 주목 할 만한 우리의 외적모습 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창업이후 지금까지 풀무질 되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명확한 미래 비전입니다. 그 하나는 세계 천연물산업의 영원한 1위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회사를 항상 서로의 꿈을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사의 28 번째 생일을 맞아 이런 우리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생명력을 공유하기 위해 유니베라 웨이(Univera Way)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국, 영문으로 출간될 사내보, 유니베라 웨이(Univera Way)는 세계 곳곳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땀 흘리고 있는 남양 가족들의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인종과 언어가 다르고 일하는 위치와 환경도 다르지만 이런 물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비전을 성취해 나아 가는데 이 작은 책자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니베라(Univera)는 미국현지법인의 상호이자 아주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우리 회사를 설립하신 청강 이연호 회장님과 미국회사의 상호를 결정하기 위해 긴 시간 토론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유니베라의 의미가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Uni는 '하나되는' '오직하나'라는 의미이고 Vera는 '진실' 또는 '찬란한 빛'이라는 의미이고 그 두자를 합하면 "오직 하나의 진실"로 풀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는 진실된 일을 위해 한 길로 가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 유니베라는 곧 미국회사의 상호로 채택 되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 우리 회사가 장래에 글로벌화가 되면 이렇게 좋은 의미를 함축한 유니베라라는 합성어를 어떤 형식이든 브랜드화 해보자는 창업회장님과의 의기투합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유니베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아 첫 글로벌 사내보 냅니다. 유니베라 웨이(Univera Way)가 세계를 움직이는 남양 가족으로 가는 과정, 과정마다 서로의 비전을 분명히 공유하며, 많은 지식을 나누며, 또 서로의 애환을 어루만지며 나아 갈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의 어려움을 감당하며 첫 사내보를 세상에 내놓은 유니베라 웨이(Univera Way)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이사 이병훈



워싱턴 주정부 유니베라 입주 환영회

지난 1월 16일 미국현지법인 임원들과 이병훈 대표, 윤경수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주지사의 초청으로 의사당내에서 유니베라 입주 환영행사가 있었다. 주상원, 하원의원 백여명과 한국총영사를 포함한 지역 경제단체장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현지법인측의 에코넷 설명회를 관심있게 경청하였으며,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약속받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앞서 주지사는 지역 방송국과 언론(The Olympian)사를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전국방송과 언론 매체에 보도 되었다.

NEW BUSINESS IN TOWN

Locke welcomes Univera



Gov. Gary Locke (center) presents a bottle of Washington wine as a gift to William Lee (left), Univera's chief executive officer, while Sen. Paull Shin, D-Edmonds (right), looks on ater a news conerence on the coming of Univera Inc. to Washington state Friday in Olympia.

미국 워싱턴주 주지사인 Gary Locke씨가 현지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이병훈 사장에게 전달하고 있고, 우측에는 한국계 상원의원인 신호범 의원이 축하하고 있다. 미국현지 법인들은 올해 7월로 Denver시에서 Seattle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Lacey시에 4만평에 달하는 사옥부지를 구입했다. 미국 법인들은 이제 태평양연안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여,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철학을 미국 전역에 펼칠 것이다.

남양알로에 신사옥 착공식



지난 2월 7일 내년에 완공 예정인 사옥 착공식을 가졌다. 시공사를 맡고있는 대양건설(주), 설계/ 감리를 맡고있는 건축사 사무소 hna온고당 관계자외 약 100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이병훈 대표는 신사옥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앞으로 같이하자고 했던 직원과 기업을 위한 미래의 터전이 되는것이라고 신사옥의 의미를 전했다. 신사옥은 처음 알로에 사업을 시작한 성수동에 대지면적 600평에 지하1층(연면적 1,455.95평), 지상 6층(연면적 1,085.01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제1차 ECONET SVC (Shared Value Course) 신입 대리 & 과장 연수



지난 2/11(수)~2/13(금)에 신입대리 및 과장을 대상으로 한 'ECONET SVC (Shared Value Course)' 연수가 (주)유니젠(병천)에서 있었다. 각 직급에 따라 필요한 역할 수행의 능력배양,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본교육, 계층별 리더양성 교육 함양 및 ECONET 자회사간 단합도모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목적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1차 연수에 이어 4/12(월)~4/14(화)까지 자회사의 대리, 과장, 차장을 대상으로 한 "ECONET SVC (Shared Value Course)" 2차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원 워크 샵



2월19일~21일까지 임원들의 강사 Skill 교육을 국내 3사 합동으로 받았다. 앞으로 사내 직원 교육과 대리점 강의에 나서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와 방법 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었다. ECONET 국내 3사 임원들의 훌륭한 강의가 기대된다.

3사 임원들 지식경영 조찬



ECONET 국내 3사 임원은 작년부터 4개월째 지식경영에 관한 세미나를 조찬모임으로 하고 있다. 지식경영에 대한 개념 정립, 남양알로에 역사에서 본 지식경영의 사례 연구, 지식경영을 위한 임원의 R&R 등 ECONET 전략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 Know-How를 익히고 있는 모습이다.



2020년 4월 5일

이 나무 한 그루를 어떤 권력가가 키울 수 있겠는지... 우리나라에 인재의 나무를 심어 보자....." 31년 전 처음 뵈었던, 인자하신 얼굴이 가슴 속에 생생히 되살아난다.

'에코넷 포스 원(ECONET Force One)' - 유니베라 전용기 안.

몸을 뒤척이다 눈을 뜬다. 연일 계속되는 출장에 피곤했다. 한 서너 시간은 잔 듯하다. 경도 자동감지 SPOT 손목시계를 보니 오전 6시. 현지 시간으로 점심 식사를 한 후 스위스 제네바를 출발하였으니 지금쯤 시베리아 한복판을 날고 있겠지. 건너편 이병훈 회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수첩을 꺼내놓고 생각에 잠겨 있다.

오년 전 제네바, 네슬레 사옥 옆에 유니베라 본부 사옥을 새로 건립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자못 의기양양한 저 거주 법인장을 보라지, 참. 그는 오늘도 식사 중에, 네슬레에서 유니베라로 네슬레 직원들이 이직한다고 항의하던 네슬레 경영진을 무마하느라 애를 먹던 시절을 회고하며 좌중을 웃겼다.

창밖으로 솨이불처럼 구름이 멎었는데, 4월 5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지 붉게 물든 구름이 서서히 일렁이기 시작한다. 본사 창립 기념식을 겸해 열리는 "천연물사업 세계제패기념식." 에코넷 포스 원은 지금 러시아 연해주를 향해 비행하는 중이다.

"땡땡" 소리에 시계를 보니 메시지가 들어와 있다. 눈앞에 3차원 입체동영상이 펼쳐지며, 연해주에서 안중근 의사와 독립운동을 함께하였던 고려인의 후손으로, 이번 행사를 책임진 담당자가 나타난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아프리카주 법인장과 미주 법인장이 시애틀-블라디보스토크 직항 국제기로 앞서 도착하였고, 대양주 법인장은 동경의 아주 법인장과 합류하여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된 고속전철로 한일 해저터널을 통과, 평양

오전 7시. 기내 유비쿼터스 회의실.

을 경우, 오전 9시에 도착할 예정이라. 이병훈 회장의 주관으로 조식을 겸한 수직계열 중간회의를 시작한다. 연해주농장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두부탕이나, 후식으로 나온, 중국농장의 오렌지 또한 맛이 기막히다.

먼저 최고농장팀장(Global Chief Farming Officer)인 안토니오가 3차원 입체동영상으로 나타난다. 구한말 일제의 폭압을 피해, 그리고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이민전단에 속아 1905년 제물포항을 떠나 미지의 멕시코 에니깡 농장으로 향했던 조선인 1천33명. 그 중 한 사람이 안토니오의 조부였다. 유카탄농장에서 채찍을 맞으며 그야말로 노예처럼 생활했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안토니오는 결코 잊지 못한다. 그러한 까닭에 멕시코 알로에농장은 그에게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자 자랑스러운 궁지이다.

전 세계에 분포한 우리의 약용식물단지를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일사천리로 보고한다. 미국농장, 멕시코농장, 중국농장, 호주농장, 스페인농장, 이태리농장..... 우리농장에 심은 100여 종이 넘는 약초들의 수량과 상태를 그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오늘의 주요 의제는 돌 파인에 플 회사의 농사 대행 요청의 건이다. 영농기술이전·지원 조건으로 기술이전료 오백만 달러 외에 매출의 5%를 로열티로 받기로 결정한다.



이어서 최고과학팀장(Global Chief Science Officer)이 보고한다. 존 홉킨스 의대학장직을 박차고 나와 유니베라에 몸담은 지 어언 십년이다. 한계에 부딪친 서양의학에 대하여 반성과 자성을 줄기차게 촉구해 온 천연요법과 대체의학의 대가이다.

유니베라가 초고속탐색기술력에서 드디어 머크사를 앞섰다는 기사를 담은, 이를 전 발간된 타임지의 표지에 실린 자신의 얼굴 사진을 그가 짐짓 상기된 표정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현재 출원 중인 20종의 신약 중 5종이 미국과 유럽공동체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한다.

최고생산팀장(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이 입체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미 5년 전 제품의 독자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OEM/ODM 사업부문은 매각하였다. SIS 시스템으로 보고가 진행된다. 이 시스템의 위력은 역시 대단하다.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제품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 예상 주문이 즉시 측정되고, 곧 바로 생산 필요량과 그에 따른 생산 계획이 계산된다. 금년 초 출시된 신세대 관절약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여, 3교대·24시간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도저히 수요를 맞출 수 없겠다는 경고메시지가 스크린에 뜬다. 단위 연매출이 백 억 원이 안 되는 제품들은 외주 가공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최고물류팀장(Global Chief Logistics Officer)의 보고가 이어진다. 완제품의 선적 상황이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연히 나타난다. 하늘로 바다로 오가는 비행기와 선박의 움직임이 세계지도상에 거미줄처럼 펼쳐진다. 남극해를 향해 중인 배 한 척을 클릭한다. 칠레로 가고 있는 에코넷 25호. 선적한 제품 내역을 포함해 항구도착일정과 육로이동경로와 창고도착일정 등이 동시에 스크린에 나타난다.

끝으로 최고영업마케팅팀장(Chief Sales & Marketing Officer)이 나타난다. 스크린에는 현재 영업 상황과 향후 3년간의 예상 매출이 떠오른다. 아프리카주 매출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 미백제품의 인기가 '짱'이란다. 중국 연변 조선족의 후예이며 홍콩이 국적인 팀장이 사족으로 걱정을 달았다. 전

인류의 40% 이상이 에코넷 설계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찌지,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기장의 도착 안내 방송을 들으며 주간회의를 마친다.

오전 11시. 유니베라가 고려인을 위해 건립한 '에코넷 필드', 세계제패기념식장.

행사장에 들어서니, 한국의 대통령께서 한 시간 후면 도착해 축사를 하게 되었다는 안내자막이 대형 스크린에 6개국 문자로 연속해서 나왔다. 한국기업을 모회사로 하는 국제기업이 천연물사업에서 세계를 제패했다는 사실에 고무된 그분은, 기실 최초의 한국 여자 대통령이다. 청강국제대학 대체의학 대학원장의 노벨의학상 수상소감은 오후로 연기된다는 안내도 있었다.

25년 전 돌아가신 선대회장님의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된다. "이 나무 한 그루를 어떤 권력가가 키울 수 있겠는지... 우리나라에 인재의 나무를 심어 보자....." 31년 전 처음 뵈었던, 인자하신 얼굴이 가슴 속에 생생히 되살아난다. 당신께서 이 세상에 심으신 그 꿈이 한결 풍성해지고, 이루신 일이 더욱 커졌음을 말씀드리며, 우리가 그간 거기에 더한 것에 대해 칭찬 받고 싶은데,

이병훈 회장의 인사말이 들린다. "20년 전 우리는, 좋은 기업을 향한, 작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내딛었더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위대한 기업을 향해 새롭게 도전합니다."

그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백년지대계와 그만이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백년의 비전이 우리들 모두 앞에 영원한 희망으로 펼쳐진다. 35년 전 처음 보았던 20대 청년 시절의 그 눈빛 그대로, 갑작스러운 한파 속에 알로에를 지키고자 나선 텍사스농장 직원, 가족들과 함께 타이어를 태우던 그 모습 그대로, 꼬박 새운 밤을 지나 어스름 새벽녘에 그늘음으로 얼룩진 열정의 그 얼굴 그대로.

글 - 미국 유니베라 성한용 사장



1981년 3월 6일, 내일은 처음으로 대학 수업을 받는 날이다. 내일의 수업은 영문법, 영문학 개론 그리고 중국어1. 중국어? 그렇지! 지난번 입학식을 마치고 수강 신청할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신청했었지. 그래, 대학 다니면서 '三國志'만은 꼭 원서로 읽어보자. '三國志' 정도는 원서로 읽어야...(나와 '중국어' 그리고 '중국'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19년이 지난 후...)

2000년 6월 21일, 오늘 드디어 중국으로 왔다. 삼아 공항에 도

수 있네요. 아빠가 보고 싶다니까 진호는 당신이 어제 보내준 팩스 편지를 가져오더군요.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몸 조심하세요. 속하.»

2000년 7월 20일, 오늘에서야 간신히 사무 기기와 사무실 입주 준비를 마쳤다. 지난 주에 계약한 사무실에 내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좀 더 좋은 환경의 사무실이 있었지만 시작은 이렇게 해보자. 바깥은 화려하지 않으나 속은 알차게 또한 실제로 내일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너무 더워 밥 맛이 없어 점심

무너지지 말자. 언제나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생각했던 '도전과 용기'. 내가 중국에 올 수 있었던 용기와 그 용기에 지금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착을 하니 이 성기 고문이 미중을 나와 있었다. 일단은三亚에서海口로 올라와 瓊島호텔에 짐을 풀었다. 너무 덥다. 왜 이렇게 더운지...자 이제 내가 일해야 할 곳에 도착을 했구나. 앞으로 '중국'이 나의 인생과 미래에 어떻게 다가와 어떤 의미가 될까?...이성기 고문은 지금도 내게 중국 사업의 중요한 조력자이다.)

2000년 6월 22일, 사랑하는 속하.

「어제 밤은 잘 잤는지... 내가 중국으로 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지내는 밤이라 잠은 설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비교적 좋은 컨디션으로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서 너무 미안하지만 내게는 새롭고 내가 바랬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설렘과 기대가 큼니다. 이러한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어요.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준 속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속하, 권희와 진호를 너무도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그리고 아빠가 중국에서」

2000년 6월 23일, 상준씨!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권희는 아빠가 출발하는 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펐지만 추석까지 꼭 참고 기다릴

과 저녁 모두 국수를 먹었다. 어디 한국의 국수 맛 같으랴.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는다 하지 않는가?. 이곳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 절대로 기대와 미련을 갖지 말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8월 11일, 벌써 이틀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요즘 3~4일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 앞의 길이 모두 물에 잠겼다. 전화로 업무 지시는 하고 있지만 빨리 회사로 나가야 할 것 같다. 이틀 간 바깥에 못 나가는 바람에 집에 먹을 거리가 부족하였는데, 저녁에 신 기설씨가 내게 밥과 반찬을 사다 주었다. (신 기설씨는 중국 현지 법인에서 최초로 채용한 직원이다.)

2000년 9월 2일, 지난 일주일 또 농장 부지를 조사하러 다녔다. 이번에는海南島 서쪽의 부지를 돌아 보았는데 그리 썩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지난 7월 사무실과 직원 2명(신 기설씨와 Katie)을 정하고 약 2달 반 동안 농장 부지를 찾아 다녔다. 조금더 생각해볼까. 농장 부지의 결정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중요한 일이 어찌 쉽게 이루어 지겠는가!

2000년 9월 15일, 사랑하는 나의 셋째 아들 相駿에게

「이 아버지의 너에 대한 바람은 첫째, 음식에서 고기는 적당히 먹되 채소를 많이 섞어서 먹어라.

둘째, 금연, 금주에 노력하며 그 시간을 중국어와 영어 공부에 힘써라.(많이 아는 것이 재산이다.)

셋째, 외출 시는 밀집 모자에 옷 옷은 꼭 소매긴 것을 입어라. 넷째, 특히 여자에 조심(반드시 銘心)하라.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섯째, 매사를 추진하려 할 때는 항상 상사와 솔직하게 의논하여라.(正直)

여섯째,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참을 忍 자(忍耐) 세 번을 생각하는 자에게 榮光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일곱째, 사랑하는 처(속하)와 권희, 진호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成就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確信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의 成功을 기원하며, 또한 成功을 확신한다.(항상 마음을 바르고 정직하게)

첫째도 健康. 둘째도 健康이다. 健康이 곧 幸福이다. 2000년 9월15일(음력 8월 18일) 아버지께,」

(이 편지는 중국 근무 후 추석을 지내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편지다.)

2000년 9월 20일, 지난 주에는 중국 도착 후 추석을 지내려 처음으로 한국을 다녀왔다. 권희와 진호가 기뻐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었지만 부모님과 속하는 대단히 속이 상하셨던 것 같다. 그 도 그럴 것이 한 여름에 농장 부지를 조사하고 다녔으니 얼굴이며 팔이 새카맣게 그을렸을 뿐만 아니라 땀을 많이 흘려 살이 많이 빠져 몸골이 말아 아니었던 모양이다. 마음을 추스려 일에 다시 집중을 하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집 생활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2000년 10월 9일, 내일 Aloecorp海口사무소의 개점식 행사가 있다. 오늘 사장님과 Mick Anderson Aloecorp사장 그리고 Jerry Aloecorp농장장께서海口에 도착했다. 준비를 충실히 하느라고 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밤 11시40분 내일의 개점식 마지막 준비를 위해 나와 신 기설씨는 더위, 모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놈의 사무실은 오후 다섯시 반만 되면 에어컨을 끄는지.....

2001년 1월 1일, 새해를 맞는 첫째 날이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 올 해 안에는 꼭 좋은 농장 부지를 찾아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다. 더 늦으면 시간을 너무 낭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아침에 신 기설씨와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다. 새해의 첫날 밤을 혼자 지내려 하니 쓸쓸하구나.

2001년 4월 18일, 그저 답답할 뿐이다. 농장 부지를 찾기 위한 연속되는 출장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다. 이 성기 고문도 무척 힘이 들 것이다. Katie가 내게 혼이 나던 중 갑자기 사무실을 뛰쳐 나간 이후 3일이 지난 오늘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혼을 내며 일을 가르치지를 않으니 내게 혼이 났을 때 대단히 당황을 했을 것이다. 내 입장에서야 관심과 애

정이 있기에 필요하다면 혼을 내며 가르치려 하는데 현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중국의 문화도 세심히 익혀야겠다. 내일은 꼭 이 성기 고문에게 Katie를 데려 오라고 해야겠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2001년 6월 9일, 오늘은 주말이라 중국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왔다. 매일 저녁의 조깅과 주말마다 하는 축구가 나의 생활과 사고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다. 중국에서의 일이 3~4년 사이에 끝이 날 일이라고 생각치는 않는다. 깊은 숨을 들이키고 깊게 심호흡을 하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해지지만 홀로 지내는 외국 생활이 가능 할 것이다. "무너지지 말자.언제나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생각했던 '도전과 용기'. 내가 중국에 올 수 있었던 용기와 그 용기에 지금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001년 10월 19일, 이제海南島에서 원만한 농장용 부지는 거의 조사를 했다고 확신한다. 약 1년 반에 걸쳐 50만평 이상의 40여 개 부지를 조사했다. 농장 부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첫째, 토질이 알로에 재배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둘째, 수원이 풍부해야 한다는 것. 셋째, 부지의 주변 환경이 수려해야 한다는 것. 넷째, 부지 매입가가 저렴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三亚로부터 반경 80km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출장에서는 해변가에 인접한日月灣 부지의 조사를 마쳤다.万寧市 국토국장은 우리에게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 달 초 사장님께서海南島에 출장 예정이시니 보고를 드려야겠다. 만에 하나 내부 검토 결과 부적합한 부지로 결정이 되면 이제는 Aloecorp海口사무소를 폐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2001년 11월 20일, 이제 됐다. 내부 검토 결과日月灣 부지가 우리 회사 사업용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결정 됐다.万寧市 정부로 빨리 가서 사업 계획의 구체 설명과 함께 우리 회사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그토록 기다리고 준비해왔던 사업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2001년 11월 21일, 대체 무슨 소리인지.....오늘万寧市 정부丁書記와日月灣 부지 매입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게日月灣 부지를 팔지 못하겠다 한다.日月灣 부지는海南島에 최후로 남은 아름다운 부지(원래 중국업체가 부지를 매입했다가 부지 매입 후 투자 미 시행 이유로 인해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강제로 회수한 부지임.)로万寧市 차체에서 별도의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한다. 우리가日月灣 부지를 개발하여 전 세계적인 알로에 Mecca로 만들 계획이라 구체 설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못 주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회사가 땅 투기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라.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중국 도착 후 약 1년 반 동안 끊었던 담배를 오늘万寧市 丁書記와 면담을 하고 나오면서 다시 피웠다. 제기랄! 내일

또 만나러 가야겠다.

2001년 12월 18일, 지난 11월 21일 이후 丁書記를 만나기 위해 万寧市 정부로 근 한 달째 출근하고 있다. 지난 번 최초 면담 이후 아직도 丁書記는 나를 만나주지 않고 있다. 할 수 없이 오늘도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왔다. 내일 또 내려 가야겠다. (해구에서 만녕시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린다.)

2002년 1월 10일, 오늘 오후에 万寧市 丁書記로부터 내일 오전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드디어 나를 만나주려 하는구나. 만나자는 이야기는 日月灣 부지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 어찌 되었든 내일 만나면 무슨 이야기가 있겠지.....

2002년 1월 11일, 저녁에 万寧市 丁書記와 석매만 해물집에서 두 번째로 만났다. 우리 회사에서 사려고 하는 日月灣 부지는 이미 제 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 계약이 끝났다고 한다. 제 3자 회사는 중국 海南島내 우수 항공 회사로서 日月灣 부지를 제공 해주는 대신 항공 회사는 万寧市 내 인민 광장, 아파트 건립 부지 조성 그리고 강락원 호텔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해주기로 했으며, 그 중 이미 진입로 포장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게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절대로 안될 일이지 나는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했다. 아니 이제까지 쫓아 다닌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안 되는 일 아닌가? 오늘은 그저 안 된다고 만하고 해구로 돌아왔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내일 또 내려가자. (두 번째로 만난 丁書記와는 그렇게 싸우면서 헤어졌다.)

2002년 1월 21일, 계속되는 万寧市로의 출근 탓에 요즘은 아주 가끔씩(일주일에 한 번 정도) 丁書記가 나와 이 성기고문을 만나준다. 무작정 書記 접견실에서 기다리면 오며 가며 마주치느라 만나주는 것 같다. 오늘도 잠시 만났을 때 미리 준비해 간 사업 계획을 또 설명을 하고 밤 늦게 집에 돌아왔다. 오늘은 이상하게 내가 무척 외롭고 슬프다는 느낌이 든다.

2002년 2월 4일, 오늘은 갑자기 丁書記가 오늘 오전 중으로 급히 만나자고 하여 万寧市를 다녀왔다. 급히 내려가 보니 丁書記가 우리에게 日月灣 부지를 제공할 터이니 오늘 당장 바로 계약을 하자고 했다. 무척 기뻐했으나 내색하지 않기를 잘 한 것 같다.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와 순서가 필요하니 최대한 빨리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키로 약속을 했다. 丁書記의 이야기인 즉 땅 투기를 하는 회사였으면 제 3자와 가 계약했음을 들은 후 벌써 돌아갔을 것이나 아직도 포기를 하기 않은 것으로 보서는 분명 알로에 사업을 하는 회사로 생각되어 어젯밤 새벽까지 항공 회사의 사장을 설득시키고 오늘 아침에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르니 서둘러 계약 체결 준비를 해야겠다.

2002년 2월 20일, 드디어 오늘 海南省 합작청 회의실에서 日月灣 부지 매입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丁書記, 万寧市 시장, 海南省 합작청장 그리고 나와 이 성기고문이 참석하여 간단한 행사와 더불어 계약을 체결했다. 거의 1년 8개월 만에 중국 사업의 큰 획을 긋는 일이 결정이 된 날이다. 오전에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日月灣 부지로 갔다. 이제는 우리 땅이라 하니 땅 위의 나무하나 풀 한 포기하나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일월만 부지 전경

2002년 6월 28일, 오늘은 사무실을 이사한 날이다. 海口시내의 중심가 빌딩에 지난 2개월간 사무실 개조와 실내 장식을 새로이 한 후 입주했다. 중국에서는 이사 날짜와 입주 시간이 사업하는데 매우 중요(돈을 번다는 뜻으로 중국어로 '發財'라 한다)하다 하여 海南島에서 유명하다는 역술가에게 이사 날짜와 입주 시간을 받아 입주를 했다. 입주 시간은 아침 7시 30분. 내 책상을 이른 새벽 새 사무실 문 앞에 미리 갖다 놓고 직원 모두가 기다렸다가 정확히 7시 30분에 입주했다. 우리 모두가 꼭 發財하기를.....

2002년 8월 23일, 지난 2월 계약한 日月灣 부지만으로는 다양한 알로에 사업의 전개가 어려워 日月灣 부지의 고속도로 건너편 茄新村 부지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2개의 부지를 확보해야만 알로에 식물원, 알로에 박물관, 우리의 방문객이 묵을 수 있는 연수원 등 다양한 시설의 건축과 농장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토록 어렵게 日月灣 부지도 확보했는데 나머지 부지 확보가 뭐가 어렵겠는가? 茄新村 부지도 확보하여 전 세계 최고의 알로에 Mecca를 만들자.

2003년 4월 14일, 茄新村 부지는 농민이 소유한 부지여서 부지를 매입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다. 茄新村 부지는 모두 18개 생산대 (농업 생산 단위로 총 420 가호)가 소유하고 있어 이들 중 2/3 이상의 매 가호 동의를 얻어야지만 농민 소유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서두르지는 말자. 서둘러 실수를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돈'보다도 '시간'에 먼저 투자하자. 그리고 중국인들 보다는 더 느긋해지자. 그것이 중국에 온 지 근 2년간 스스로 터득한 나만의

방식이 아닌가?

2003년 6월 13일, 茄新村 정부와 万寧市 정부측에서는 수목 및 재배식물의 보상비를 평당 평균치로 지불하자고 한다. 도대체 모르겠다. 茄新村 부지 내에 있는 수목 및 재배 식물에 대한 보상비를 지불하는데 어떻게 평균치로 계산하여 지불할 수 있는가? 야자수, 팽랑수 하나 하나를 모두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방법이 없을 때에는 정직하고 무식하게 일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다. 차라리 매번 줄로 경계를 만들어서, 나무에 하나 하나 표시를 해가면서 세어 보자. 힘이야 들겠지만 두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다. 또 나무를 하나 하나 세면서 땅과도 친해지고 우리 땅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은가? (지금도 茄新村 부지 내의 모든 나무 하단부를 보면 나무를 셀 때마다 표시한 빨간 페인트의 흔적이 있다.)

2003년 10월 7일, 2개월 이면 될 줄 알았던 일이 4개월이나 걸려 오늘에서야 茄新村 부지 내에 있는 나무를 전부 세고 보상비를 지불했다. 우리가 매입한 수목의 수량은 야자수 3,656주, 팽랑 63,117주, 바나나 11,052주, 기타 수목 16,120주이다. 정확한 수목의 전체 수량은 93,945주다. 오늘 茄新村에서 보상비를 최종적으로 지불하고 돌아왔다. 이제야 茄新村이 진짜로 우리의 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茄新村을 나올 때 이제부터는 진짜로 우리 땅이라 생각하고 걸으니 '밭이 땅에 짝짝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개운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2004년 1월 1일, 2004년 나의 기도

첫째, 속하는 육아를 우선적으로 하며, 올해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둘째, 권위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만큼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반듯한 어린이가 되도록 해주세요.

셋째, 진호는 건강한 생활 속에서 특히 훌륭한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초등학교 생활을 잘 시작하게 해주세요.

넷째, 우리 가족 모두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해내는 현명함과 용기를 주시고 (특히,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세요.

다섯째, 내가 내 평생의 동반자인 숙하와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혈압과 꾸준한 체력 관리 그리고 항상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섯째, 내가 일에서 능력을 인정 받아 기반을 다지고 더 좋은 기회가 주어 지도록 좋은 사람과 일하게 해주세요.

2004년 1월 9일, 지난 2002년 남양알로에 영입국장 海南島 세미나를 한 후 2년이 지난 오늘 최초로 茄新村 알로에 농장에 사장님, 부사장님 그리고 국장님들을 모시고 알로에를 심었다. 참으로 내게는 의미 있는 날 이었다. 중국에 처음 도착했던 날의 나의 의문점. "앞으로 '중국'이 나의 인생과 미래에 어떻게 다가와 어떤 의미가 될런지..." 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는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알로에 농장 개발의 일에 두려움은 없다.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 '중국'아 기다려라. 내가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로 달려가마.



최초 알로에 식재 장면

2000년 6월 중국 도착 후 틈틈이 메모를 해둔 것을 이번엔 정리하였다. 지난 3년 10개월 간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농장 부지를 정하는 일, 알로에 원로 매출을 늘리는 일, 중국어를 배우느라 학교를 다니는 일,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출장 다니는 일, 이제까지는 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였다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 될 것이다. 올 한해는 알로에 원로 매출 증대, 茄新村 알로에 농장의 건설, 알로에 Powder 공장 건설, 日月灣 부지의 기초 공사 개시, 알로에 건조 생산, 참으로 많은 일들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10년 후 미래의 海南島 중국 현지 법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저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설렌다. 중국 현지 법인은 전세계에 알로에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알리는 중심지로서, 바로 알로에의 Mecca가 될 것이다.



중국 현지법인 직원들

나 혼자이던 중국 현지 법인이 이제는 사무실 13명, 건조 공장 18명, 茄新村 알로에 농장 25명으로 모두 56명이나 된다. 중국에서는 잦은 移職으로 직원들이 한 직장에 1~2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은 모두 2년 이상 혹은 3년이 넘도록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 직원에게 감사할 뿐이다.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꼭 같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글 - 중국 하이난 알로콧 & 남양 한상준 소장

경 영전략본부 주관하에 처음으로 ECONET산하의 해외현지법인 첫 소식지에 러시아 현지법인을 소개하게 되어 현지법인 직원 모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공계 전공자인 제가 첫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 러시아 현지법인으로서 조금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 미국과 적성국가 이었던 관계로 공무원들은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아 혼자서 처음 여행하기는 지금 생각해도 무모한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곳입니다(물론 영어를 한다고 해도 저에게 문제가 더 많겠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러시아로 왔으니 무언가를 이루어, 지금 제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저의 2세가 아빠가 무엇을

아빠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 부끄럼 없게 말할 수 있도록...

근무한 11년이 쏠살같이 뇌리를 스쳐지나가면서 앞으로 러시아 현지법인의 위상을 관계계열사에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제 어깨를 마구 짓누르고 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004년 1월1일, 러시아 현지법인 사장으로 발령을 받고 1월 부임준비를 하면서도 수많은 불안과 걱정을 안고 간단하나마 이사집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로 인하여 한국에서 가족, 친지들과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으나, 러시아 현지법인은 비행기만 타면 2시간 만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마음 한편 위안을 삼으며 2월4일 부임을 하였습니다.

2월4일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주)남양외 관계 회사에서 근무한 11년이 쏠살같이 뇌리를 스쳐지나가면서 앞으로 러시아 현지법인의 위상을 관계계열사에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제 어깨를 마구 짓누르고 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불법과 비리가 많고 마피아들이 설치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까하는 걱정도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은 일반적인 공항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비행기 한대분 정도의 승객만을 처리 할 수 있는 규모로 비행기 연착등으로 2대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 입국수속만 하는데도 3~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시설은 한국의 60년대 말 또는 70년대 초반 정도의 시설로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이루었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 부끄럼 없게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극동 러시아는 물부족 지역인데다가 이번 겨울에는 눈마저 없어 올해의 봄 갈수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부임하던 그날 마침 40cm 가량의 서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트랩을 내딛는 순간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몸속으로 파고 들었으나, 서설을 바라보며 성공적인 영농을 기대하는 저의 흥흥한 마음을 식히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지법인 직원들이 저를 마중나와 눈길을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 사무실로 향하는 길이 그렇게 많이 다녀보았는데도 새로운 광경으로 비추어 졌습니다.

제가 이루어 내야 할 일에 대한 중압감과 눈으로 인한 희망이 서로 교차하면서 2시간 가량의 차량이동을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거립니다.

저녁녘에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사무실에서 약300km 떨어진 농장인근의 군청소재지인 슬라비얀카로 다시 이동하여 오후 11시에 도착, 부임 첫업무로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나중에 첫 대관업무에 대한 소식을 소식지 1면에 신고자 합니다.

이튿날 새벽 6시 슬라비얀카를 등지고 블라디보스톡 사무실

로 이동하여 직원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고 모두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겉으로는 반가운 표정이었으나 사실 현지언어도 잘 안되는 직장상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걱정들이 눈에 어려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 또한 이제 직접 말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 날은 직원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는데 있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여도 부족한 블라디보스톡에서 아파트 임대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자가 부족한 러시아에서 아파트 임대료는 상상을 초월한 지분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현지법인 직원들의 수고로 비교적 적용하고 깨끗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어 모든 행동을 국가와 민족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글이 미국 현지법인에도 배포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미안하지만 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테러에 대한 걱정은 아직 약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현지법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에는 3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 중 Holding Company로 "Unigen-Russia"가 있고 "Unigen-Russia"와 영농법인인 "Bon-Sa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농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3개의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3개 회사직원은 총 17명으로 행정직 8명 농업 및 기술직으로 9명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 러시아는 겨울이 몹시 추워 땅속 1.5m까지 얼어 겨울에는 농장직원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어 이번 소식지에는 블라디보스톡에 근무하는 직원만 사진을 찍어 소개드립니다.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소식지라 모두들 외모에 많이 신경쓰고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준비하는데 1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현지법인 블라디보스톡 사무실에서 약 5분정도 거리에 있는 러시아 유일의 부동항 블라디보스톡항을 지키는 등대에서 찍었습니다.

아직도 사진 뒤로 바다가 얼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배가 얼음을 깨고 나갈 수 있으면 러시아 사람들은 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진의 우측부터 소개하면

- 리빠브스카야 나탈리 드라철헤브나(책임경리 : 1953년생, 기혼)
 - 쉬멘듀크 왈렌틴 예브게니비치(업무용차량 운전기사 : 1954년생, 기혼)
 - 윤 스베트라나 아나톨리에브나(경리사원 : 1976년생, 미혼)
 - 프로토펙빠바 올가 아나톨리에브나(경리보조 : 1973년생, 미혼)
 - 리트비노브 알레고 알렉산드로비치(무역업무 : 1978년생, 기혼)
 - 김 예브게니 아나톨리에비치(통역업무 및 총무 : 1981년생, 미혼)
- 그리고 사진찍은 제가 사진정면에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더군요.

현지법인은 차츰 행정업무등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영농법인 관리가 러시아에서는 무척 어려운데 각종 법안이 영농진흥 쪽으로 가고있어 제도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여름 팀장 러시아연수를 보고 많이들 부러워 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있음을 자부할 수 있었다고 모두 말을 하더군요.

금년에는 현지법인 직원도 1명 동참 할 예정입니다. 부임한지 벌써 한달이 되어가고 있고, 2150ha에 달하는 농장 개발 과제가 이제 곧 시작될 예정이라 마음이 조금함을 감출 수 없어 공연히 직원들을 바쁘게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사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우리 Econet 관계사중 가장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 현지법인에 많은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 유니젠 러시아 구원모 이사



러시아에서 구원모 이사

해병장교에서 과학도로 인정받고 있는 노총각 연구원

유니젠 병천 연구소에서는 가끔씩 붉은색 해병대 군복을 볼 수 있다. 장교에서 과학도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허영문 연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동물실험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혼기를 짝 채운 노총각 연구원이다. '결혼 하실 나이 시지요?' 라는 질문에 " 저요, 동물실 쥐들과 결혼했습니다." 여유 있게 농담으로 대답하는 그는 옆집 아저씨처럼 포근하고, 비록 미물이지만 동물들에게조차 정을 듬뿍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 이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

5년간의 직업군인 생활을 뒤로하고 과학도로서의 길로 전환한지 어언 4년..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의 뜻을 잇고자 해군장교로 지원하여, 특히나 힘들다 하는 해병생활을 오랫동안 지내면서 대한민국 군인장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길을 굳혀갔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 우리나라 연구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되고자 했던 나의 꿈을 이대로 접을 수는 없었기에,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는 어려운 결심을 했던 것이다.

대학교 시절 미생물학을 전공했지만 군대생활이 길었던 탓이었을까,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그 중 가장 어렵게 다가온 것은 다른 사회 초년생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나이였다. 연구직에서 그동안의 군대경력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소한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보다 나이 어린 신입연구원들과 동급으로 인정 받더라도 그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위하여 연구 활동에 전념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달려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입사한지 단 1년 만에 유니젠 우수사원으로 뽑힐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연구원이자 사회인이 된 것이다.

유니젠에서 나의 꿈을 펼치고...

현재 그가 속해있는 생리활성 검증팀은 유니젠 연구소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GenoActive™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물 추출물에 대한 약리효과를 평가하고 그 화합물을 추적해 나가는 연구를 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허영문 연구원은 주로 동물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뷰 당시, 마침 동물실에서 쥐의 운동성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여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성인남자 손 한 뼛만한 큰 쥐를 작은 폴속에 넣어서 처음 놓아졌던 위치를 헤엄쳐서 찾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천연물 투여에 의한 기억력 향상능력을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했다. 수영풀에서 건진 쥐를 수건으로 일일이 물기를 닦으면서 쓰다듬어 주는 모습이 참 자상하게 보여지기까지 했다. 그는 이 외에 유효성분이 함유된 천연추출물을 직접 투여 후, 질환 대사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폐, 혈관, 피부조직을 등을



직접 표본화 하는 실험작업을 한다고 한다.

"실험목적이지 않지만, 동물들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빼앗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요.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히 지냈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동물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유니젠 입사하면서 주말을 거의 연구소에 반납하고 있다. 동물실험 특성상 규칙적으로 사료와 물을 주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케이지 청소 및 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물실 동료연구원들과 교대로 주말근무를 한다.

"처음에는 귀찮고 불만스러웠지요. 하지만 이제 순번이 아닌 주말에도 집에 있을 때면 그것들이 눈앞에 선하고, 밥은 잘 먹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걱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동물실험팀 동료들도 다 함께 고생하는걸요. 그저 훌륭한 연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내 또 하나의 기쁨

그는 연구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능통한 유니젠의 '운동짱'이다. 병천연구소 3층에 위치한 체력 단련실에서는 퇴근 후 오후시간이면 어김없이 허영문 연구원을 만나 볼 수 있다. 자신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들에게도 기구사용 방법과 올바른 운동법등을 조언해 주면서 유니젠의 '운동짱'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면서 스스로 인터넷상에서 찾은 그림을 운동실 벽면에 순서대로 붙여놓기까지 하는 부지런함을 보여주었다.



10년 후, 내 모습은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무엇보다 인간관계죠!" 라고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삶의 터전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직장에서, 물론 내가 하는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본인이 남자들과는 오래 생활해봐서 지내는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여자들과는 그러지 못해서인지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을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혹시 자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버려주시고 편안하게 대해주길 바란다고, 쑥스럽게 부탁의 말도 전하였다.

그는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한다고 한다.

"현재 하고 있는 연구실적이 축적되어서 훌륭한 연구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무엇보다도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도 꾸미고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인들에게 허영문 이라는 사람을 '정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는 작은 소망도 전하였다.

취재 - 유니젠 연구기획팀 홍영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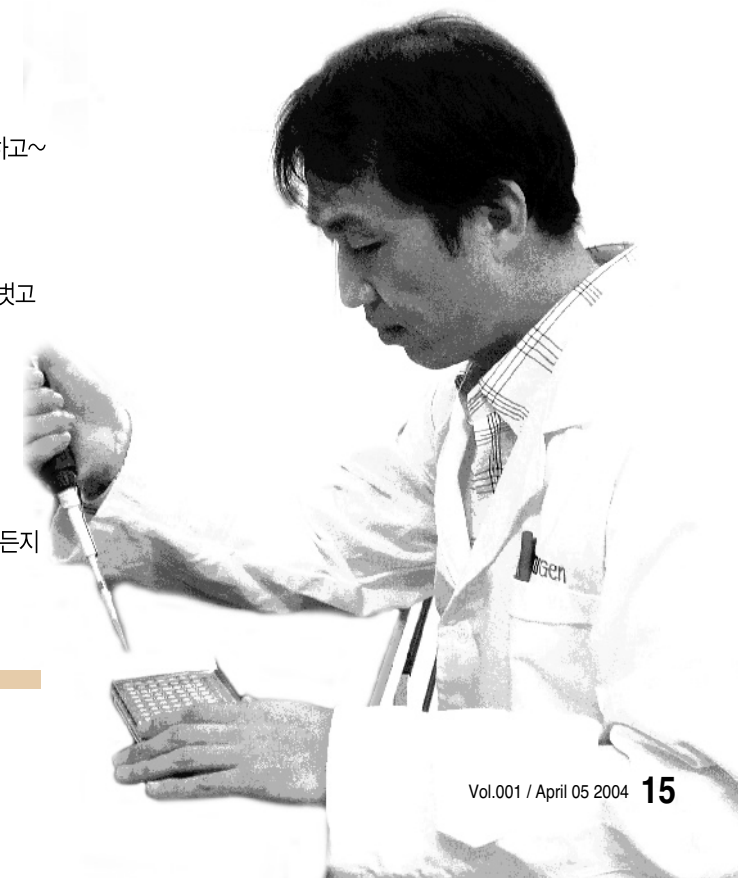
Tip! Tip! Tip!

"이달에 사원으로 뽑힌거 축하해! 평소에 일 많이 시켜서 미안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구!!"
(생리활성검증팀 팀장 도선길 박사님)

"영문씨요~ 그사람 추위도 안타요, 한겨울에도 덥다고 웃옷 벗고 다닌다니깐요..누가 좀 말려줘요~!"
(연구지원실 차경섭 연구원)

"영문아~, 올해는 꼭 장가가라~!"
(기숙사 룸메이트 윤길상 차장님)

"동물실험 한다고 식사시간 놓칠때가 많잖아. 그럴더라도 언제든지 챙겨줄 테니깐 꼭 식당으로 내려와요~ 파이팅!!"
(구내식당 하희자 영양사님)



5?



변화에 성공할 수 있는 원칙이 존재하는 것일까?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로드맵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다"이다. 많은 성공적인 기업의 사례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인묘환 - 서강대 졸업 / 중앙대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한국중공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 BSC컨설팅 대표(현재)

먼저 Univera Way 창간을 축하 합니다. 그리고 ECONET의 엔진을 힘차게 가동하고 있는 귀사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초석이 될 본지에 글을 쓸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변화! 그것은 듣기만 해도 벽차고 힘을 주는 단어입니다. 우주만물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이땅은 아직 태고의 원시시대였을까요? 그리고 구르지 않는 돌에 이끼가 끼듯이, 새로운 기운의 산소와 물이 샘솟지 않는 우물이 고갈되듯이 그 자체가 사라졌을까요? 글쎄 변화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유창한 언변에 세상지식이 충만하여 이것 저것 아는것이 많아 이야기 석상을 항상 주도하였던 김부장이 요즘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갓 들어온 신입사원들한테 기가 꺾였다나...글쎄 온통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에 지금까지의 노하우가 좀처럼 먹혀 들지 않으니 어깨가 축 쳐질 수 밖에요.

김부장은 요즘 새로운 무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 후배들의 정보수집등의 위력에 눌러 잠시 없었던 자신감을 되찾고 곧 捲土重來(어떤일에 실패한 뒤 다시 힘을 쌓아 그 일에 재차 착수하는 일)를 꿈꾸고 있다. 그래 자네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갖가지 정보수집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기에 경험이라는 자네들이 갖지 못한 나의 파워가 있지. 김부장은 요즘 열심히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탐구하는데 밤을 새우면서도 얼마후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꿈꾸고 있다. 다시 자신감에 차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밤 잠을 설쳐도 피곤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도 잠시의 학습이 아니라 항상 자신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입수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상시화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체계적인 대응을 꾀하고 있군요. 여기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지속적인 실행여부를 점검하는 지속적인 실행의지를 보이니 이제 본인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은 어렵지 않겠군요.

그렇다면 변화에 성공할 수 있는 원칙이 존재하는 것일까?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로드맵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다"이다. 많은 성공적인 기업의 사례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21세기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말하면 대다수가 정보화, 세계화, 인본화를 말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C&C(Computer & Communication)의 혁명, 국경의 해체를 의미하는 세계화, 인간중심의 경영 등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지닌 21세기에 기업에 요구되는 경쟁력은 차원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열거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구성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이다. 우리는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에서 항상 5등 이내에 머무르고 있는 기업들이 왜 변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까? 국내의 우수한 선진 기업들이 왜 자고 나면 변화를 강조할까?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식이 깨어 있을수록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실천 함으로서 기업이 영생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구성원 스스로 느낄 수도 있지만 조직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변화의 비전이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는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비전은 간단하고 명료할수록 좋다. 중장기적 방향이면서도 명확히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비전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감된 공통의 것이어야 하며 구성원은 비전을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명확히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구성원의 참여이다. 많은 경우 기득권자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우위를 유지하고자 변화에 동참을 꺼려 한다.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막상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전환되면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된다. 즉,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기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변화에 대한 욕구보다 크거나 같은지 또는 작은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며 저항의 원인을 찾고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데 보통 이러한 저항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은 조직내의 정치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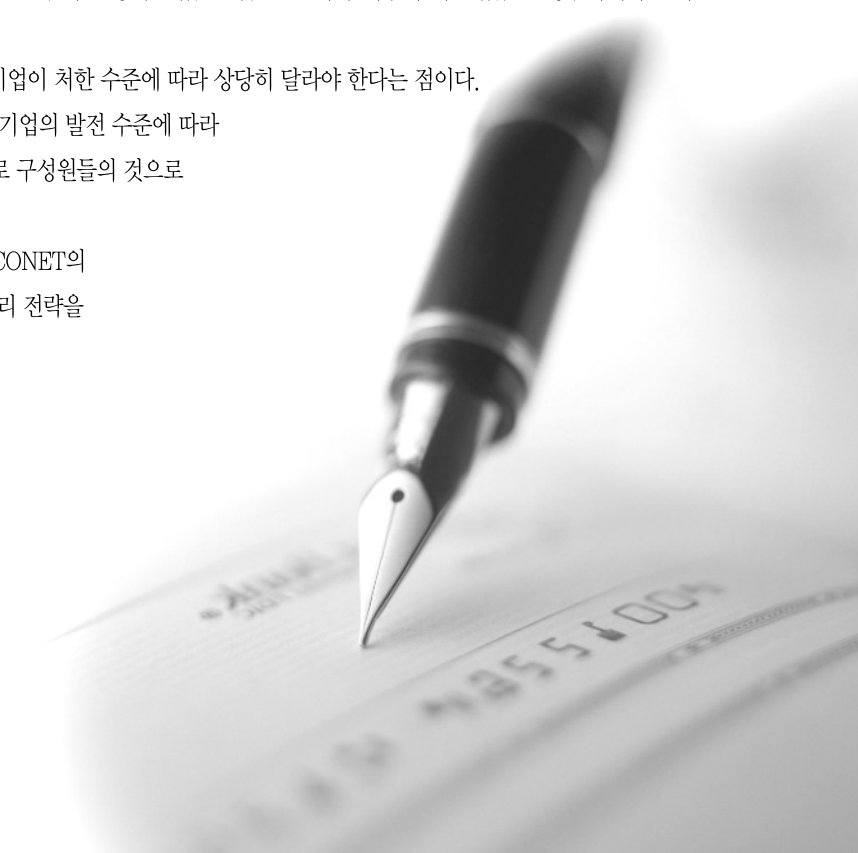
넷째, 구조 시스템의 정비이다. 변화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조직과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재의 조직이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가? 조직의 정책, 제도 및 제반 절차가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들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가, 과정, 정책 그리고 절차가 요구대로 정비되고 통합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끝으로 변화의 지속화이다. 변화를 위한 Bench Mark를 만들고 과정을 관찰하도록 한다. 만약 요구되면 중간 수정을 한다. 변화의 지속화는 최초의 변화의 시작보다도 훨씬 중요한 조직 구성원들간의 신뢰의 기초가 된다.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할 것과 버릴 것을 잘 취사 선택하는 것이다. 변화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는 평가, 피드백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의 5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처방은 기업이 처한 수준에 따라 상당히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변화관리에 성공하였다는 GE (General Electric)도 기업의 발전 수준에 따라 그 변혁의 강도를 조정하였으며 아주 체계적인 준비로 구성원들의 것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ECONET은 글로벌 경영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ECONET의 전략 로드맵은 이미 설정되어 있다. 성공적인 변화관리 전략을 구사하여 전세계 곳곳에 ECONET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글- 한국 BSC컨설팅 인묘환 대표



서로 다른 공간의 같은 시간



2월 27일 오후 1시 33분, ECONETIAN들이 동시에 셔터를 눌렀다!

점심시간이 지난지 얼마후, 식곤증이 몰려올 시간쯤 부서 곳곳을 조심스레 들여다 보았다.

남양알로에



요만큼만 더 신경좀 써달랑께~~
김승현님, 지금 프로포즈하는 자세 아닌가요?



흑... 너무 하십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뺨 맞고 고개 돌린 강호진님. 그를 애써 왜면 하고있는 고희만님).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흠



이게 뭘 찾아여?
(느닷없는 카메라에 화들짝 놀랐다는 이원석님...)
뭐하고 계셨어요??



저를 꼭 합격시켜 주세요~~~
신입사원 면접 대기실에서 김바다 대리를 애처로이 응시 하고 있는 입사 지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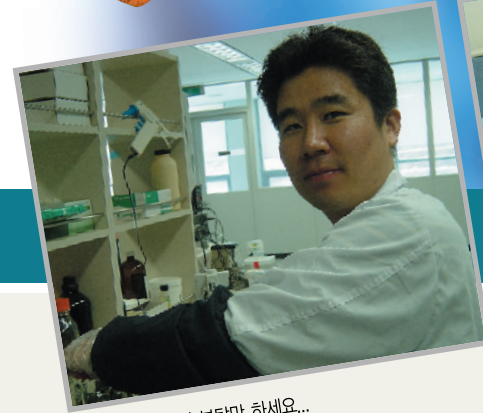
새로운 VI에 맞는 디자인 개발중...
진지한 표정의 신민선 주임(기업문화팀)



남양알로에의 사육구동, 사진을 찍든 말든 정신 없는 영업팀. 이진우님, 김중찬님, 김현님, 옥민상님. (사진 왼쪽부터)



유니젠



뭘 같이드릴까요? 부탁만 하세요...
든든한 제모습 잘 찍어 주세요^^
천연물 연구팀의 남정범 연구원



병천 연구소의 최고 꽃미남 차경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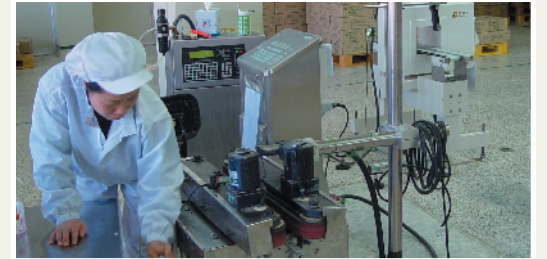


3명의 마스크맨
생산포장실에서 김중한, 정일형 연구원, 이정민 사원



남양

방해될까 살금 살금...셋!
저에겐 관심도 없이 일에만 열중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쉬엄 쉬엄 하세요..



다음 지령 시간
4월 20일 오후 3시 5분

찰칵! 찰칵!
그 시각 여러분의 모습을 담아 보내주세요.





우린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해

태극기 휘날리며

소위 8층으로 불리는 (주)남양 경영전략본부는 한 달에 한번씩 특별한 날이 있다. 조금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러 가는 것이다. 2003년 초부터 시작했으니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간다.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ECONET가족들은 한달에 한번 특별한 날을 정해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하니 "평소에 얼마나 메말랐기에 그럴까?" 하겠지만, 우리 그날을 기다린다. 우리의 문화생활은 주로 영화, 공연, 연극 중 그 때의 기분에 따라 경영전략본부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물론 본부장인 본인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다만 예약은 오경아 대리가 한다.

작년에 본 연극 중 뇌리에 남는 것은 단연 "갈갈이 삼형제"이다. ECONET 가족을 위해 설명을 곁들이면 요즘 잘나가는 개그맨들이 연극형식을 빌어 재롱떠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갈갈이 삼형제"를 본 후 30대 중반을 넘은 우리들(팀장 이상만 포함)은 "문화생활"을 즐기게 아니라 "문화충격"을 받았다. 일단 처음 자리에 앉아 있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출연자가 나오자마자 "빅타이 부대가 났다"며 우리를 주눅들게 하였다. 아니 우리가 주눅들거 보다 공연자들이 긴장했다고 표현하는게 맞을 듯 하다. 소위 '엇박자'라고 할까. 공연자가 제일 곤란한 상황이 관중의 무반응일 것이다. 우리가 그랬다. 다른 10대, 20대 관중은 장단 맞추어 박수치고, 대답하는데 우리는 무표정, 한박자 늦은 웃음이었다. 그날 우리는 세월에 뒤처져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문화생활'로 본 영화중에서는 2003년에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2004년에는 '태극기 휘날리며'가 단연 압권이다.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는 조선시대 양반가문의 총각과 수절하는 과부의 정사를 그린 것이었지만, 배용준과 진도연의 변신이 좋았다. 특히 진도연이 좋다. 작은 몸에서 우리 나오는 연기의 힘은 매번 관객을 즐겁게 한다. 이야기 구성도 좋다. 조선시대라면 유교의 윤리와 남녀유별의 엄격함을 떠올리는 것이 상식이나, 이를 통렬히 부수어 버린 남녀간의 사랑이 영화의 끝부분에선 오히려 애절함을 느끼게 한다. '통하였느냐?'라는 유행어를 낳기도 했지만, 난 그보다는 한 여자를 아끼고 살리려는 한 남자의 애끓는 '丹心'이 좋았다. 물론 여자의 막무가내 식의 매달림도 사랑의 아픔을 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문화탐방 “갈갈이 삼형제” 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까지...



'태극기 휘날리며'...
이십 수년동안 영화를 보면서 훌쩍이기는 처음이 아닐까 한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아픔과 형제애를 이데올로기라는 굴레를 넘어 전달하였기에 내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까 한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한국 영화 천만명 관객시대를 열기에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무려 2시간 30분에 달하는 상영시간 동안 숨죽이며, 주변에서 마구 훌쩍이는 소리를 들으며, 나도 울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구두닥이 후배를 무참히 죽일 때의 충격과 살기위해 좌익의 보도연맹에 참여한 약혼녀를 의심해 망설이는 순간의 안타까움은 그 시대를 같이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들의 전쟁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어왔던 터였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일제잔재, 이데올로기, 전쟁 등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굴레이지만, 형제애, 사랑 등은 그 굴레를 넘는 다리가 아닐까 한다.

우리 '문화생활'을 즐긴 후엔 술먹고 한 달의 스트레스를 푼다. 처음에는 각자의 관심사에서 뽀뽀하고 있었지만, 차츰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의 주제를 찾아 가고 있다. 현재 남양알로에 성수동 사옥신축을 감독하고 있는 최규남 과장의 주제는 두가지이다. 건축과 의원님... 그와 얘기하다 보면 모든 주제가 이 두가지로 귀결된다. 그는 자기 전공에 충실한 사람이다. 재무를 담당할 김장진 차장은 술 먹으면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는 아이들 얘기를 시작하면 신나 한다. 기획을 담당할 김석원 과장은 술 먹으면 말이 없다. 주로 남의 얘기를 듣는 편이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얘기하기 시작한다. 비서 업무와 Univera Way를 만들고 있는 오경아 대리는 웃기만 한다. 술 조금만 마시면 즐기고 있다.

'문화 행사'에 가끔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기도 한다. 작년에는 (주)남양의 공생식 팀장과 (주)남양알로에의 염경옥 차장을 초대했다. 러시아연수 때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이었다. 올해는 (주)유니젠의 이성순 과장과 (주)남양알로에의 정찬수 상무를 초대했다. 이성순 과장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정찬수 상무는 상무 진급턱을 무려 4개월만에 났다. 그는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의 '문화생활'은 앞으로도 ECONET 가족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한 달에 하루는 특별한 날이다.

글 - 남양 경영전략본부 윤경수 상무

2004년 2월 25일, 청주 가경동 한 피자집에서 남양 연구실 연구원 몇 분이 피자를 먹으면서 토크쇼를 가졌습니다.

"나 이럴 때 끓고, 나 이럴 때 녹는다"

라는 주제에서 자기의 경험담 이야기를 한편으로는 얼굴 붉히면서,

한편으로 웃으면서 취재에 동참하였습니다.

피자값 (5명이 피자 패밀리사이즈 2판을 소화함)은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처음으로 갖는 자리만큼 어색하지 않고 재미나게 취재 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 했습니다.

"나 이럴 때 끓고 (Hot), 나 이럴 때 녹는다. (Happy)"



학창시절 절친했던 친구들과 아주 오래간만에 만날 약속을 한날!!

그날 아침에 퇴근시간에 맞추어 업무계획을 세워 바쁘게 일하는 도중 실험이 잘 안되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여,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말 정말로 열 받는다. 사회생활을 한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새벽 별보고 출근을 한다. 별보고 출근, 별보고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하다 보니 어릴 적 가졌던 꿈은 뒤로 한 채 현실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바쁜 일상 생활에서라도 가끔은 허리를 펴고 파란 하늘과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여유와 계절의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장인들이여 하루에 한번쯤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라. 이럴 때 행복하지 않은가!!!

▶남양 연구실 이선숙 연구원

고집 하나로 26년을 살아온 난데 내가 꺼낸 화제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친구들이 있다. 이상하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 수록 내가 끝까지 우기던 화제가 점점 신빙성이 사라지고 반기를 든 친구한테 기울 때 정말로 넘쳐 오르는 분을 참을 수가 없다. 이럴 때 정말로 끓는다. 끓어!!!

지고는 못살지... 다시 화제를 바꾸어 이번엔 확실한 화제로..그러면 그 친구는 또 반기를 들지...이 때 확실히 알아준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사필귀정인가?. 그 친구가 바로 꼬리를 내리게 된다. 이럴 때 금방 있었던 일은 다 잊어 버리고 나는 녹는다. 내 머리가 나쁜건지!!!

▶남양 연구실 정찬대 연구원



오래간만에 시간을 쪼개어 친구와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 날, 그 시간쯤에 남자 친구랑 놀러 간다고 전화로 약속을 취소할 때 정말로 끓지!!! 정말로 보고 싶던 TV프로를 못 보고 지나간 후 우연히 재방송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녹는다.

▶남양 연구실 채진희 연구원

새로운 차로 바꾼지 한 달쯤 되었을까.. 애지중지 나의 애마를 타고 안전운전, 보고 또 보고 안전운전을 하며 출근 중이었다. 급한 차를 모두 양보해 주고 또한 모래를 많이 신고 있던 덤프트럭도 나의 양보를 받고 내 차를 추월했다. 그런데 추월 중에 주먹만한 돌맹이 하나가 나의 애마 유리창에 떨어져 그만 손톱만한 흠집을 내고 말았다. 나의 애마도 아팠겠지만 나는 더 아팠다. 끓는다 끓어~~~(출근시간에 쫓겨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최종면접을 보고 며칠 동안 정말로 맘 편하게 쉬었다. 그 동안 못 보았던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그 후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초조한 마음이 더 커져만 갔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기다리라는 말 뿐... 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설 시기에 걸려온 전화 한 통화 "축하합니다"입사 지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남양 연구실 박용운 주임 연구원

취재-남양 연구실 주임연구원 김진영 기자

동기사랑 통하었느냐!



난,
'아사리 공주!'

최진영 대리가 생각하는 박정아 대리는?

박정아 대리가 있는 곳에서는 웃음이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밝고 환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노치너라고 가끔 놀리기도 하지만, 가끔 신입 사원들에게 박대리가 어느 정도 나이일 것 같냐고 물어보면 노치너같이 보이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기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 그래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듯 (웃으며, 쫄쫄)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진 커리어 우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 회식자리에서도 잘 어울리는 모습은 놀랍기도 하죠. 어느 부서 회식자리에서도 박대리의 모습은 보이니까요.

여하튼 화려한 싱글, 용감한 싱글이라는 생각에 가끔 부럽기도 합니다.

박정아 대리가 생각하는 최진영 대리는?

머리가 좋아요. 사실 제가 가끔 애칭처럼 부를 때 '잔머리 초이(Choi)'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머기도 좋는데 성격까지 좋다고 본인이 극구 주장을 하지만, 그럴 때는 제가 응수하죠 '외모가 빠지지!'...^^

하지만 신입사원으로 입사 후 가장 진지하면서도 믿음이 가는 분위기를 준 동기 중 하나이기도 하죠.

믿음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입사이후 거의(?) 변함없는 믿음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든든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두 번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서로 양해가 되는 부분이 되니까요.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 동기들 모임의 감초라는 점이지요. 동기모임에서 최진영 대리가 없다면 모임 자체가 없는 것 일 테니까요. (이때 박대리가 표정을 묘하게 바꾸며 한마디 합니다. '너무 띄워주나' ^^)

두 분이 친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나요?

박 : 아마도 신입사원 연수 과정이었을 겁니다. 저희 동기들은 선배님들에게 유난히 붙어다니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선배님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임장소를 숨겨가며 만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선배님들이 모임에 함께 하는 경우 저희들끼리 있을 때 보다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 모임 중 한번은 동기 중 한명이 술의 힘을 빌어 저에게 관심을 표한 적이 있었어요. 좀 과도한 관심이었는데, 최대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었고 그로 인해 동기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기가 어떤 남성이 저에게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호호호.. (기자 입장에서 이런 공주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만, 취재상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최 : 물론 이성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요. (하하)



나는,
'잔머리 초이!'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마케팅실에서 근무하게 된 2004년부터는 더욱더 직장 생활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는 얼굴색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냥 힘내자! 라는 말 한마디로 힘이 되곤 합니다. 입사를 1996년에 했으니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동안 함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으니까요.

최진영 대리는 '잔머리 초이', 박정아 대리는 '아사리 공주'라고 서로 별명을 부르는데 별명에 의미가 있나요?

박 : 최대리를 잔머리 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정말 정확한 의미는 머리가 작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하)

머리 좋은 것을 혼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함께 나누는 기술, 즉 가르치는 기술이 좋은 친구이기도 하죠. 저뿐만 아니라 부하직원, 다른 부서 직원한테도 아는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때로는 팁 정보까지 주기도 하죠. 다른 별명으로는 '엑셀 팀장'도 있어요. 엑셀의 수식이나 활용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파니까요. 직원들은 '최팀장님은 엑셀이면 다 됩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최 : 당연히 박 대리의 공주병 때문에 붙은 이름이죠. (박대리님의 표정변화에 정색을 하는 최대리님) 농담이구요, 이름이 박정아인데 어쩌다 빠가사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동기모임에서 횡집엘 가게 되었는데, 그 날 빠가사리 매운탕을 먹게 되면서 동기들끼리 애정어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가사리란 별명은 너무 가혹하니, 좀 부드럽게 불러주자. 그래서 붙은 별명이 조금 간략화, 미화해서 아사리 공주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공주님이라고 줄여 부르다보니 공주병 환자(?) 취급을 받는다며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

친한 분들은 취미활동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두 분은?

최 : 현재 남양알로에는 동호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인라인 동호회인 롤링스톤즈가 있어요.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인라인 선수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둘 다 왕초보입니다.

박 : 일부러 함께 들리고 한 것은 아니지만, 동료와의 만남이 아쉬웠던 터에 인라인 동호회가 생기고 운동 부족을 한창 느끼고 있던 참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가입하고 보니 동기가 있더라고요. 동기라고 해서 따로 만나서 인라인을 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이야기할 꺼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겨울 합숙 훈련을 하는 곳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최대리는 동호회원들을 위해 찬조금까지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쿨앤짱에 선정되었나 봅니다.

취재 - 남양알로에 마케팅실 고객지원팀 박정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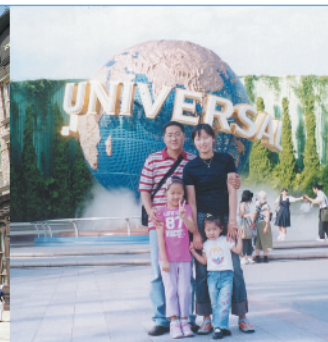




오사카성(텐슈가쿠)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니버설 스튜디오(정문)



나라(동대사) 다이부쓰덴



동대사(청동대불)

나도야간다 ~ 일본기행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하면 가장 먼저 "비싸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나 의외로 저렴하게 다녀올수 있는 곳이다. 특히, 좋은점은 시차가 없고, 같은 동양문화권이며 치안상태도 양호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질서의식과 친절한 국민성이 인상적인 일본으로 떠나보자.

2003년 9월 14일

먼동이 터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반짝 눈이 떠지고 말았다. 오늘이 가족과 함께 4번째 일본여행의 날이다. 투정부리는 아이들을 깨워 승용차편으로 부산으로 향했다. 국제여행터미널 2층에서 출국카드와 일본입국신고서를 쓰고 팬스타페리의 승선권을 구입하였다. 탑승계단을 따라 배에 오르니 객실 입구인 1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되어 있다. 30도를 약간 넘는 후텁지근한 날씨였지만 배 전체에 냉방이 되고 있는 듯, 선내에 들어서자마자 상쾌함이 느껴진다. 팬스타페리의 첫 인상은 깨끗하게 정리된 고급 비즈니스 호텔 정도다. 짐을 풀고 나서 아이들과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선내 사우나! 바다 위 사우나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힘들었던 몸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다. 시간은 때마침 일몰.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수평선 위로 불붙은 듯 펼쳐지는 석양은 이 같은 기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장관이다. 또, 팬스타측은 이 일몰시간에 한해 배 앞머리 조종실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개방하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오후 4시에 부산항을 출발, 오사카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다음날 아침 10시이니 팬스타페리는 장장 16시간의 긴 여정으로 현해탄과 세토내해(瀬戸内海)를 건넌다. 배에 오르자마자 휴식 후 저녁식사, 밤 바다를 바라보다 한잠 꼭 자고 나면 오사카에 닿아 있다. 오전 9시45분, 드디어 16시간을 달려온 팬스타가 오사카 남항(南港)에 닿았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나라

본격적인 여행의 첫 코스는 나라에 위치한 동대사이다. 동대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인 다이부쓰덴(大佛殿)으로 유명한 곳. 높이가 47.5m로 현대식 건물 16층 높이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건물 안에는 앉은키 16m의 청동대불 좌상이 모셔져 있다.

입구인 난다이몬(南大門)에서부터 건물의 크기에 기가 질린 관광객들은 다이부쓰덴의 말도 안되는 규모에 한번 더 놀라고 그 안에 있는 세계최대 불상의 규모에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모르게 된다. 빛에 의한 불상의 훼손을 막기위해서인지 어두컴컴하게 꾸며놓은 다이부쓰덴 안을 천천히 걸다보면 도다이지 축소 모형과 사천왕상이 눈에 띄고, 건물 정면에는 800년된 목불이 있는데 이목불의 무릎을 만지면 좋다는 소문이 있어 목불의 무릎은 반질반질하다. 난다이몬과 다이부쓰덴 바로 앞에는 연기를 쏘이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향로가 하나씩 놓여 있다. 우리가족도 이곳에서 향로에서 타오르는 연기를 듬북 쏘었다. 동대사를 떠난 버스는 95년 대지진의 아픔을 간직한 고베(神戸)로 향한다. 다음 목적지는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이라고 알려진 '고베의 '난킨마치(南京町)'. 입구에서부터 '용' '조각을 한 중국 음식점이 눈을 끌고, 붉은색과 금빛의 온갖 화려한 장식들로 꾸민 상점들이 중국 분위기를 물씬 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아두는 곳이다. 마침 한신 타이거즈 야구단이 리그 우승을 하여 온통 축제 분위기였고, 일행을 태운 버스는 난킨마치 바로 옆 고베시청 앞에 섰다. 천만 불 짜리 야경이라는 고베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중인 24층의 전망대에 오르기 위함이다. 경비원 아저씨의 안내를 받고 전망대에 오르니 대지진을 겪은 도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단장한 고베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롯코산(六甲山)과 남쪽으로 바다까지 펼쳐진 시원한 경치를 둘러보니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다. 전망을 마치고 내려온 후 다음 코스로 향한 곳은 메리켄 파크! 19세기 초 미국 영사관이 있었던 곳이라 '아메리칸 파크(American Park)'란 뜻으로 이

름지어졌다는 이 곳, 메리켄 파크는 고베의 명물 전망대인 고베 포트타워 바로 앞에 자리한 해변공원, 워락시설이다. 커다란 대관람차와 '모자이크(Mosaic)'라 이름 붙여진 쇼펄물, 식당가 등이 군집해 있는 이 곳은 고베와 오사카의 젊은이들이 데이트 코스로 즐겨 찾는 만한 황홀한 야경을 가지고 있다. 고베 포트타워와 그 옆의 해상호텔,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유람선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고 우리가족은 저녁식사를 하러 식당가로 발길을 옮겼다. 식사를 마치고 오사카로 이동했는데 고베와 오사카는 차로 20분 거리이다. 우리가 묵을 호텔은 신오사카역에서 2분거리인 뉴오사카 호텔이다. 미리 예약해놓은 덕분에 우리는 일본전통의 화실로 들어 갔는데 다다미의 색다른 맛을 느낄수 있었고 아이들 또한 매우 좋아했다.

일본 최대의 명소, 유니버설 스튜디오!

여행 셋째 날, 오사카에서 우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향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은 헐리우드 영화를 주제로 만든 테마파크로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족워락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시설을 그대로 재연했기 때문에 미국을 가지 않아도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이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각 영화 속의 장면을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각종 어트랙션. 터미네이터 3D 영화나 백투더퓨처 라이드, 주라기공원 라이드 등은 가장 인기 있는 코너이니 입장하자마자 줄을 서는 것이 좋다. 꼭 어트랙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유니버설 스튜디오 안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넘친다. 거리의 보도블록이나 가게 간판 하나도 모두 영화 속 분위기가 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신기한 것은 특색 있는 외관의 가게들이 모두 그 분위기에 맞는 물건을 실제로 팔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튜디오에 입장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자 아이들이 지쳐하는 것 같아 나가기로 하고 유니버설 시티에서 잠시 휴식 후 오사카 시내로 향했다. 오사카 시내의 목적지로 잡은 곳은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금룡라면'이 있다는 음식천국 '도톤보리(道頓堀)' 거리이다. 유니버설 시티 역에서 도톤보리가 있는 난바(難波)역으로 가기 위해선 일단 오사카 역까지 가야 한다. 오사카 역에서 개찰구를 지나 역 밖으로 나오면 정면에 우메다(梅田)역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 역 지하로 들어가 지하철 미도스지(御堂筋)선을 타고 '난바'로 가면 붉은 글씨로 '긴류라멘(金龍ラーメン)' 간판이 딱 허니 걸려 있다.

금룡라면은 김치와 부추, 다진 마늘 등을 푸짐한 그릇에 담아놓고 누구라도 얼마든지 가져다 라면에 얹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인기를 끌어 유명해진 곳이다

간판 크기는 어마어마한데 가게 규모는 명성에 비해 너무 작은 규모에 잠깐 놀랐다.

금룡라면을 끼고 있는 골목을 오른쪽으로 돌아 조금 걸어가니 그 유명한 오사카의 먹자거리 도톤보리(道頓堀)가 나온다. 도톤보리는 언제 와봐도 흥겨운 축제의 거리, 음식의 거리라는 인상을 풍긴다. 일본에서 오사카 사람들의 활달함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의 재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꼭 시간을 내어 한 끼를 이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오사카 성의 하이라이트 텐슈가쿠와와 가이유칸 수족관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먹고 우리가족의 마지막 일정은 오사카 성과 초대형 수족관 '가이유칸(海遊館)' 방문이다. 오사카 성의 하이라이트 텐슈가쿠(天守閣)는 우리가 흔히 책에서 보는 오사카성의 대표적 건물로, 멀리서 보아도 가까이서 보아도 아름답게만 보이는 텐슈가쿠의 자태는 꽤 볼만한 것이었다. 특히 텐슈가쿠가 뒤로 보이는 공원 잔디밭은 여행객들이 '일본여행 증명사진'용으로 가장 애용하는 곳. 이 곳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잘 나온다. 이제 마지막 관광코스인 가이유칸으로 떠날 차례. 지상 8층에서 4층까지 4개 층에 걸친 거대한 수족관과 그 안을 헤엄치는 수만 마리의 고기떼, 또 각 바다 별로 나누어 놓은 심해 어류들이 펼치는 장관은 한 번쯤 보지 않으면 후회할만한 구경거리다. 아이들은 너무나무 좋아하고 어른도 볼만해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류모양의 자석 장난감을 사 주었다. 가이유칸의 하이라이트는 전시코스 맨 마지막에 있는 형광 해파리 전시부스. 손톱보다도 작은 해파리들이 수십 수백 개의 발을 하늘거리며 물 속을 수영하는 모습은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태초의 미생물을 연상케 한다.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기전 들른곳은 아시아 무역센터가 있는 오사카 남항 지역 이다. 항구와의 거리는 도보로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구경하기 좋고 이곳에는 100엔샵이 자리잡고 있다. 생필품,과자, 공산품등 정말 많은 제품이 100엔이다. 1시간을 돌아다녀 계산해보니 3,570엔! 부피에 비해 정말로 싼 가격이다. 항구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하고나서 밖으로 나오니 이제는 익숙해진 일본여행을 마치는 시간인 것이다. 출항 후 정말로 멋있는 일몰을 보면서 가족여행의 참 맛을 느낄수 있었다.

글- 남양알로에 영업교육팀 조준용 과장

우리회사 이런

소식
저런 소식



ECONET 통신원 수첩 !

1) ECONET인 용어 통일

국내에선 ECONET로, 미국에선 EcoNet으로 사용하던 것을 ECONET 영문 대문자로 표준화, ECONET인을 ECONETIAN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2) 제28회 창립기념일 행사 (창립기념일 : 2004/4/5)

ECONETIAN들의 하나되는 "창립기념 대동 한마당"을 개최! 각 사별로 경쟁심리를 갖는 마음가짐보다는 다 같이 하나되는 마음가짐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일 시 : 2004년 4월 3일 09:00~15:00
- 장 소 : 청강문화산업대학
- 10년 근속자 : 김진희, 설동수, 한상준, 김연자, 박상섭, 양병욱

※ 다음호에는 창립기념일 행사내용과 더불어 여러분의 한마당 사진을 올리고자 합니다.

3) 사랑나눔이 창단시 사우회 20만원 전달

- (전달자 : 사우회 우길중 회장님) 앞으로 더욱 좋은일에 사우회 활동을 기대합니다.

4) 2004/3/5 100년만에 찾아온 폭설로 인한 재해현황

- (주)남양알로에 - 3월6일(토)에 대전교육장에서 영업컨설턴트 대상 역량강화 교육시 대전시내 교통이 마비되어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열차가 탈선한 상황에서도 영업컨설턴트의 참석율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 (주)남양 - 진천에 12:55 천막이 붕개되었고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 (주)유니젠 - 토요일에 집에 못간 사우 8명이 기숙사에서 잤다는군요 (기숙사 밤이 모잘랐다니요?) 그래도 정말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5) 학자금 지원현황

- 유 치 원- 만 5세까지 1년에 36만원 지원 (분기별로 9만원씩 지원)
- 중 학 교- 육성회비 지원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 지원
- 대 학 교- 청강문화산업대학에 입학하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 직계가족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단, 성적이 B학점 이상)

6) 사우회 소액대출 제도

- 사우회에서 500만원까지는 연6%의 이자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접수하는 순서대로)

7)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남양알로에

- 오선택 (생명과학 연구소) : 충북대 대학원 약학과 천연약품학 석사 수료
(논문 : 알로에 다당체의 분자량별 면역 증진 효능 및 항암 효능)
- 조선희 (기업문화팀) : 전북대 대학원 산업디자인학 석사 수료
(논문 :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 디자인커뮤니케이션(IDC) 전략) 현재 : 경희대 국제 경영학과 박사과정중

- 이재은 (경영지원실) : 서강대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 조준용 (영업교육팀) : 동국대 식품공학과 2002년 2월 석사 취득, 방통대 교육과 학사취득
- 송은주 (영업교육팀) :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육공학과 3학기 재학중
- 정종희 (영업교육팀) : 동국대학원 식품공학과 1학기 재학중
- 조용호 (영업교육팀) : 방통대 교육과 3학년 재학중
- 원혜현 (영업교육팀) : 방통대 가정학과 학사학위 취득
- 김 현 (영업교육팀) : 방통대 경영학과 4학년 재학중
- 김윤하 (영업교육팀) : 삼육대 평생교육원 4학년 재학중
- 안현진 (경영지원팀) : 국민대 경제학과 1학년 재학중

▶남양

- 심호영 (경영관리본부) : 충북대학원 경영학 수료
- 이시찬 (생산본부)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유니젠

- 조태형 (대표이사) : 석사학위 취득, 중앙대학교 의학식품대학원 산업약학전공

회사다니면서 공부하기란 쉽지 않았을텐데요.. 정말 자랑스럽군요!
각 자 자기분야에서 ECONET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CONET 전사 소식 !

■ (주)남양알로에 소식

◆ 부서별 소식

1) 마케팅기획팀

-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맞이하는 정성으로 신제품 출시를 합니다. : 활력증진, 에너지대사 활성화 제품으로 몸이 가벼워져 운동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3월1일~31일, 한달간 이루어진 알로에 진실 하나더 캠페인을 마감하고 대리점 생활건강설계사 증원 수기를 모집, 정리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 경영지원실

- 열기에 찬 영업 컨설턴트 교육
3월6일(토) 대전교육장에서 영업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매월 두 번씩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처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유니젠에서는 양병욱 과장도 참석을 했으며, 앞으로는 남양에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3) 고객지원팀

-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본사에 등록된 고객에게 제품 홍보 DM을 발송합니다.

◆ 그 밖에 소식들

- 귀사를 환영합니다. • 건강한 아들의 엄마로 다시 회사로 돌아온 박선희님을 환영합니다.
 - 임신을 축하합니다. • 제품물류반의 오성균 사우님이 아빠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월)
 - 영업본부의 괄은정 대리도 엄마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 6월)
- ♥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출산하시길 기원합니다.♥

- 남양알로에 치어팀 모집 : 매주 토요일 한강공원에서 농구경기가 이루어집니다.
 - ◇ 영업팀과 비영업팀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응원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 ◇ 언제까지? : 다 모일 때까지
 - ◇ 몇 명이나? : 오는 사람은 누구나 (여성이면 더 환영합니다.)
- 남양알로에 2월 쿨&짱 심진우 주임 선정
남양알로에 신문화 추진위원회는 2월의 쿨&짱으로 중부영업팀의 심진우 주임을 선정했다. 매사 긍정적이고 동료와 고객들에게 늘 웃는 얼굴을 보이며, 영업담당으로써 대리점에서 최고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사람 좋고 다부지게 일을 잘한다는 점이 많은 상사와 동료, 후배 직원들의 고른 추천을 받은 사유가 되었다.
(쿨&짱? : '쿨&짱 릴레이 추천' 은 남양알로에 신문화 확립을 위한 Culture code 프로그램의 하나로, 칭찬할 만한 점이나 배울점이 있는 동료를 추천하여 매월 한 명을 쿨&짱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일하기 즐거운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남양알로에의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월별 쿨&짱 중 1명은 다시 분기 쿨&짱으로 재 선정되어 캐리커처와 동료 직원들의 덕담이 담긴 액자를 선물 받는다.)
- 대리점 설계사 자녀 돕기 헌혈 캠페인 전개(2.24 ~ 3.10)
남양알로에는 재생불량성빈혈로 3월 중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신규미영업국 최정희 설계사 자녀인 김대호(초3)군을 돕기 위해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대호군에게는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20여명의 O형 수혈자가 필요하며,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수혈자가 병원을 방문해주야 한다는 점 때문에 본사와 서울지역 대리점이 함께 참여하고 모으고 있다. '사랑하는 기업'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남양알로에는 본사의 헌혈 신청자가 근무시간 중 헌혈을 요청 받는 경우 근무시간을 배려해주기로 했다.
- 알로에 진실, 하나 더~ 캠페인
지난 3월 11일 남양알로에 임직원 30여명은 건대특약점 등 9개의 서울, 경인지역 대리점에 배치되어 생활건강설계사와 함께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올해의 경영 방침인 'Action Win-Win 2004' 에 맞추어 3월 한달간 IMC차원에서 실시하는 "알로에 진실, 하나 더" 캠페인의 일환으로, 3월 11일에는 본사 직원들도 대리점과의 Action Win-Win의 취지로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각 대리점은 인근 지역에서 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고객과 직접 만나 리프렛, 샘플 등을 주며 고객초청행사를 고지하거나, 건강문진 서비스 등의 판촉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남양알로에는 NTS의 강화와, 본사-대리점간의 긴밀한 신뢰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 (주)남양 소식

◆ 부서별 소식

- 1) 경영정보팀
 - ERP TFT 팀원 발촉(3월) / ERP Kick-off (4월)
- 2) 경영지원팀
 - 3/15~3/18 일본건강박람회 출장 (출장자 : 안계환, 오정숙, 조태형)
 - 3/24~3/28 해남도 조경공사 출장 (출장자 : 이시찬, 유니농원 최진욱 사장)
 - 남양알로에 대리점 공장견학 실시 : 3/18,3/19,3/26,3/30 (약 350명 견학)
 - 건강보조식품협회 공장견학 실시 : 3/26, 4/2
 - 식품팀 : 비타민 신제품 생산 (3월)

3) 경영전략본부

- 제2기 ECONET SVC교육 실시
제1기 ECONET SVC (신입 대리 과장)교육에 이어 제2기 ECONET SVC교육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 각사 팀원급의 대리, 과장, 차장 중 ECONET SVC 교육 미이수자
 - 일시: 4월 12~14일 (2박3일)
 - 장소: 미정 (원고출당시)
 - 교육내용: 제1기 교육에 준하여 편성 예정(1. ECONET VISION, 2. 변화관리 교육, 3. 회의 기법교육 등)



◆ 그 밖에 소식들

- 2003년 우수사원 포상 중국 해남도 (3월 4일~7일) / 대상자 : 이재운 대리, 김홍만 사원
- 3/11(목) 연구실 김진영 대리님 집들이.
2/1에 결혼한 김진영 대리님이(주)남양 임·직원(정광인쇄 이병을 사장님까지) 35명을 초대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집들이를 거하게 했습니다. 정말 인기 만발이시죠.^^ 앞으로 알콩달콩 잘 사시길 바랍니다.

■ (주)유니젠 소식

- 특허 출원
제 0417244호 분죽 추출물을 함유하는 혈액순환개선용 약학조성물.
제 0417243호 항염증 활성을 지닌 분죽 추출물을 함유하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
- 신제품 UG 10
UG 10은 인삼과 홍삼에서 각각 보고된 진세노사이드 10종에 대하여 총합 4% 이상으로 하는 인삼유래 신소재로서 인삼의 주요 유효성분인 10종의 진세노사이드들에 대한 품질 보증을 통하여 인삼이 갖는 효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이 소재 제품의 특징은 각 진세노사이드별로 그 함량을 제시하여 품질보증 함으로써 다양한 건강기능소재와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각 건강기능소재가 갖는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건강기능식품 기본 소재라는 점이다. 실례로 최근 남양알로에와 공동으로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비타민, 미네랄 성분과 함께 기본 소재로 사용되어 에너지 대사의 활성화를 통한 활력증진 및 영양조절용 제품으로 개발되어 4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 미국 현지법인 소식

- 알로코프(Aloecorp) 세계 천연물 박람회 참가.
4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세계최대규모의 천연물 박람회(Natural Products Expo West)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아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3월 17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되었다. 건강식품, 화장품, 유기농 식품, 음료등 천연물과 관련된 2,500여개의 회사가 부스 전시를 하였으며, 13,000여개의 구매회사가 참가하였고, 전체참가자수는 86개국 36,000명으로 집계되었다. 금년 6월에는 유럽, 10월에는 미국동부, 12월에는 홍콩에서도 이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천연요법과 대체의학의 선호와 천연물 세계업계의 꾸준하고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올해도 첨단과학과 최상품질을 갖춘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였다. 십년째 꾸준히 이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는 알로코프는 올해 유니젠 이스트와 공동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세계 최고 품질의 알로에 원료임을 다시 한번 공인을 받았다. 더욱이 ECONET 차원에 (주)남양의 김영태 부사장, 예정수 차장 그리고 김석원 과장도 이 박람회에 참가하여 명실공히 알로에 기반의 세계적인 천연물 회사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2004 Natural Products Expo West

- 유니베라(Univera) 미국 지주회사 사옥토지 구매.
작년 12월 와싱턴주 레이시시 소재한 사옥용 토지를 오만평을 구매하였다. 지난 오년간 미국전역을 조사한 결과 미국내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물류상 아시아와 최단거리이며 제일의 주거지역인 면에서 이곳을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주지사 및 신회법상원의원 적극적이고 강력한 권유와 주정부의 지원도 큰 요인이었다. 향후 5년내 미국현지법인의 사옥과 생산시설,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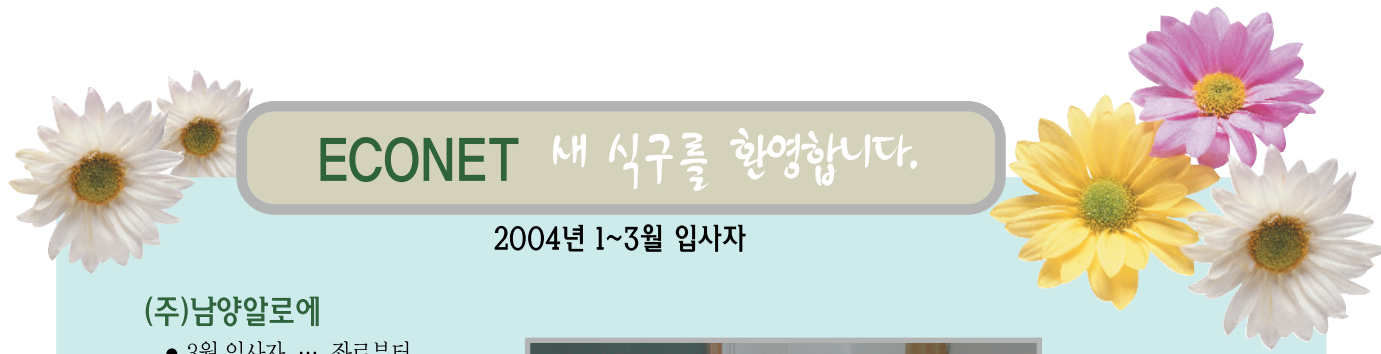
■ 중국 현지법인 소식

-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중국 하이난 알로콧 알로에농장에 알로에 식재

■ Unigen-Russia 소식

- 2004년 황금 본격재배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사를 위한 자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재인 철관파이프 구매가 완료되어 3월22일부터 대수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초자재가 부족한 현지에서 철관파이프를 구하고자 결국 하산군 도로공사진행 지역에서 간단한 설득으로 자재를 농장으로 입고시킴)
- 3월20일에는 농장의 각종기계장치 및 운반구들에 대한 외부검열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농장의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꿈틀대는 Unigen Biomass 모습이 보인다.

Univera Way 소식지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소중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소식 주실분들은 ECONET@univra.com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CONET 새 식구를 환영합니다.

2004년 1~3월 입사자

(주)남양알로에

- 3월 입사자 ... 좌로부터
 - 김봉호(중부영업팀),
 - 전익표(교육팀)
 - 이창수(부산경남팀),



(주)남양

- 1월 입사자



박용운 주임(연구실), 유승환(연구실), 서동미(연구실), 정찬대(연구실), 신순범 (생산기획팀), 김연진(경영기획팀)

어디서나 새 식구들을 만나시면 반갑게 먼저 인사해 주시고 낯설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참고로 다음호에 ECONET 새 가족 소개(양케이트)가 있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동호회 소식

(주)남양알로에

◆ 인라인 동호회 “롤링스톤즈”

- 롤링스톤즈란? 인라인 동호회로서 의미는 인라인에 이끼가 안끼도록 열심히 타자.... 겨울철에는 스키&보드를 타지용~~~
- 월 2회 (첫째,셋째 토요일) 정기 훈련을 하고 시간이 된다면 언제나 모입니다.
- 2003년 9월 4일 창단된 롤링스톤즈는 현재 21명의 회원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 4월에는 전체 회원의 화려한 외출, 거리로딩을 나갑니다.
- ▶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은 : 서울영업팀 박영수 동호회 회장께 연락주세요!



◆ “사랑 나눔이” 봉사팀

- 남양알로에 본사 임직원 '사랑 나눔이' 봉사팀은 지난 2월 21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희귀, 난치병 환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작년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병원을 찾고 있는 본사 임직원들은 환아들을 위한 생일파티, 이동도서대여, 놀이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9명의 아이들에게 생일파티를 열어주었으며, 놀이교실에는 4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지난 달부터는 남양알로에 임직원 뿐만 아니라 남양의 심호영 이사님의 가족들도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 어느덧 병원에서 환아들과 보호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사랑 나눔이'의 자원봉사 활동은 앞으로도 매달 계속될 예정이다.
- ▶ 자원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문의 남양알로에 기업문화팀 김정훈 02-460-8992)



(주)남양

◆ 축구회

- 충북 녹색 그라운드 전사들, 현재 정회원, 준회원 포함하여 회원수만해도 30명이다. (주)남양에 근무하는 남자분이라면 거의 포함되었다고 봐야겠죠! (축구회 회장님의 흐뭇한 웃음^^) 정기적으로 한두번 모여 자체 경기를 갖고 유니젠과는 정기적으로 친선 경기를 갖습니다. 물론 진천에서 한번뛰면 병천으로 가서도 한번 뛰지요 더 좋은 것은 승패에 관계없이 초대하는 쪽에서 밥을 산다고 합니다. 또한 덕산체육대회(지역모임)에도 참가하여 지역모임에도 친목을 도모합니다. 참고로 2004년 3월 20일에, 유니젠과 한바탕 빅게임이 있었습니다.
- ▶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은 : 연구실 이재현 동호회 회장께 연락주세요!

◆ 산악회

- 산을 좋아 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사직원을 포함한 온 가족의 건강 모임 동우회
- 작년 지리산,추월산 등산 이후, 2004년 3월 27~28일 아름다운 섬!!! 제주도 한라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 등산에 관심이 많은 ECONET 직원 여러분들은 같이 떠나면 어떨까요?
- ▶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은 : 경영지원팀 최순미 동호회 회장께 연락주세요!





◆ **낚우회**

- 잔잔한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말없이 모임을 갖는 침묵(침묵) 동우회!
현재 회원은 남성들만 13명입니다. 1년중 4월~10월까지 매달 야외 낚시를 가고, 겨울철에는 하우스 실내낚시와 송어 플라이 및 로어낚시를 갖습니다. 또 12월엔 망년회도 겸하면서 친목을 도모하지요... 그 중 봄, 가을엔 바다낚시를 가고, 참고로 작년엔 서해안, 남해안에 가서 갈치, 우럭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매년 4월에는 첫 시조회가 있고, 올해는 4월4일이나 4월10일경에 시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분들 (특히 여성회원 대환영)은 주저하지 마세요!
▶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은 : 생산기획팀 김홍만 동호회 회장께 연락주세요!**

◆ **영화사랑**

- 한달에 한번 영화 속에 주인공이 되는 동우회.
장동건, 권상우, 원빈 등 영화를 통해서 더욱더 직원간의 친목이 두터워진 동우회입니다.
에니메이션, SF, 에로물, 드라마...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모임.
2월에는 "태극기 휘날리며"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배웠다고 합니다.
▶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은 : 연구실 김진영 동호회 회장께 연락주세요!**



(주)유니젠

◆ **볼링회**

- (주)유니젠 볼링동호회는 2002년 1월 2일에 창단, 볼링을 사랑하고 아끼는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회원들은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으로 24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동호회 모임을 통해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인화단결로 유니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탄생 초기라 많은 것이 모자라지만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은 : 소재개발팀 조지녀 동호회 회장께 연락주세요!**

◆ **축구회**

- **활동내역**
유니젠 축구동호회는 2003년 1월에 창단하여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통해 건강과 명량한 회사생활 및 사회활동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정회원 12명 준회원 6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는 분기적으로 (주)남양과의 친선경기를 비롯하여 당사 인근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축구 동호회 팀과도 경기를 치르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은 : 연구기획관리팀 차경섭 동호회 회장께 연락주세요!**



ECONET 가족 경조사

ECONET 가족생일 축하합니다.

(주)남양알로에

- ◆ **아기 돌잔치 축하드립니다.**
 - 2004/3/15 대구경북팀 이광훈 - 둘째 딸 이은혜 아가
 - 2004/4/24 대구경북팀 김윤식 - 첫째 딸 김연우 아가 (장소: 원고슬당시 미정)
▶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세요!**
- ◆ **본인 결혼 축하드립니다.**
 - 2004/2/08 대구경북팀 김효재 신랑 - 안소영 신부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04/3/01 영업지원팀 진찬숙 - 시부 별세)

(주)남양

- ◆ **아기 돌잔치 축하드립니다.**
 - 2004/3/01 화장품생산팀 이용기 - 첫째 아들 이선재 아가
- ◆ **본인 결혼 축하드립니다.**
 - 2004/02/01 연구실 김진영 신랑 - 이승원 신부



- 2004/02/22 경영정보팀 윤석훈 신랑-최상신 신부



(주)유니젠

- ◆ **본인 결혼 축하드립니다.**
 - 2004/05/02 시설관리팀 김영선 사우 (장소: 익산 알리앙스 예식장 - 시간: 오후 12시 30분)
 - 2004/05/29 생물정보팀 박찬영 연구원 (장소: 청주 연초제조장 - 시간: 오후 2시)
▶ **많이들 가셔서 두 커플의 밝은 미래를 축하해 주세요!**

♣ **4월 생일자**

(주)남양알로에

- 변인숙(4.2), 김윤식(4.5), 김현(4.15), 변혜원(4.17), 옥민상(4.18), 조선희(4.19), 고희민(4.20), 이신희(4.21), 이진우(4.23), 김희수(4.25), 정현정(4.30)

(주)남양

- 서동미(4.1), 윤성원(4.4), 신은희(4.6), 심호영(4.9), 이재운(4.19), 안길순(4.20), 방창규(4/23), 이병훈(4/24), 김석원(4.26), 유홍석(4.30) 오정숙(4.30)

(주)유니젠

- 박길수(4.14), 조태형(4.20), 성희선(4.22), 이정민(4.27)

♣ **5월 생일자**

(주)남양알로에

- 정찬수(5.9), 신은미(5.13), 조은석(5.19),

(주)남양

- 차경애(5.2), 이종현(5.8), 박정순(5.13), 정잠숙(5.15), 신부희(5.15), 백충현(5.16), 박종숙(5.18), 신춘하(5.21), 황요하(5/22), 오경아(5/24)

(주)유니젠

- 양병욱(5.14), 신 흥(5.19), 김훈경(5.22), 김종한(5/23), 성선영(5/25), 차경섭(5.27)

현지법인(미국,중국,러시아) 이런 저런 소식도 다음호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후기.....

- ◆ 회사의 얼굴이자 역사가 될 *Univera Way* 소식지!
어떻게하면 잘 나올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여러모로 걱정했지만, 각 법인의 기자님들과 글 올려주시분들 또 뒤에서 보이지 않게 걱정해 주시며 격려해 주신 분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게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CONET 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내는 유익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관심(참여) 부탁드립니다. 창간호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합니다.
..... 남양 경영전략본부 오경아 대리 / 편집장
- ◆ 남양알로에의 이야기를 남양알로에 이외의 그룹사 직원들에게도 보이고 또 우리도 함께 하는 장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 남양알로에 마케팅실 고객지원팀 박정아 팀장 / 기자
- ◆ 예구.. 편집장님을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따뜻한 network가 열렸으니, 앞으로는 더욱 따뜻한 소식 전하는 행복 통신원이 되겠습니다당~~
..... 남양알로에 마케팅실 기업문화팀 김정훈 / 기자
- ◆ 나름대로 잘 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못 한 것이 매우 아쉽고,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자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었습니다.
..... 남양 연구실 주임연구원 김진영 / 기자
- ◆ 소식지 발간은 관계회사지만 서로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잘 알수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특히, 분사 후 입사한 분들에게는 더욱더 유용한 자료라 생각되며, (주)남양의 소식을 빠짐없이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남양 경영지원팀 윤성원 / 기자
- ◆ *Univera Way*의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항상 배워나가는 자세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니젠 연구기획팀 홍영주 주임 / 기자
- ◆ 사내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니베라 웨이가 에코넷이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창간호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 유니젠 마케팅팀 최재영 과장 / 기자
- ◆ 이번 유니베라 창간호를 즈음하여 모든 회사끼리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미국 알로콧 생산관리 김수겸 부장 / 기자
- ◆ 따스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피어나는 꽃망울과 함께 창간되는 ECONET 소식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ECONET가족들의 이야기, 영롱한 삶의 지혜, 어깨동무한 함성으로 가득해서 무성하게 성장하며 흥겨운 가락이 넘치는 앞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미국 UPI 회계팀 이요한 부장 / 기자
- ◆ "유니베라 웨이" 소식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무쪼록 각사간의 유익한 정보 공유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미국 오아시스 재무팀 손병일 과장 / 기자
- ◆ "유니베라 웨이"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글로벌 그룹인 에코넷 그룹의 관계사 모두가 "유니베라 웨이"의 의미인 "오직 하나의 진실"이 추구하는 온화하고 밝은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큰 활약 기대합니다.
..... 미국 유니베라 관리본부 재무팀장 Melody Kim / 기자
- ◆ 가족과 같은 여러 관계 회사 및 해외 현지 법인의 소식을 듣고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 소식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창간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중국 하이난 알로콧 & 남양 총경리 비서 송윤섭 / 기자
- ◆ *Univera Way* 러시아 담당기자로 일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각종 통신시스템이 열악한 러시아이지만 생생한 러시아 소식을 전하기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유니젠 러시아 통역업무 및 총무 Jenya Kim / 기자



Univera Way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English Version



*Bill Lee
President & CEO
Namyang Company*

Celebrating the Birth of *Univera Way*

At about this time of every year, I reflect on how Namyang was established on a very auspicious day. April 5 was probably designated as Arbor Day because it is a day that provides the best conditions for a sapling to take root in new soil to grow strong and healthy. I believe it is very fortunate for Namyang, a company dealing with human health, to have been founded in a season when nature brings forth new life, renewing its founding vision and determination every year in the spirit of vitality.

As in all worldly matters, companies undergo cycles of ups and downs over time. The past 100 years provide ample evidence of countless companies walking the perilous tightrope of success and failure. History tells us that triumphs or disappointments, whether small or big, do not in themselves determine the destiny of a company. In fact, history shows that the company that takes a deep breath while blending the inevitable failures and successes in a melting pot with a sound corporate philosophy, clear vision of the future, and resilient vitality overcomes the ups and downs to survive and flourish to the end.

In this context, I believe that during the past twenty-eight years since the founding of the company, Namyang has established a solid foundation for our master plan. Keeping true to our cherished corporate philosophy “Bringing Nature’s Best to Mankind,” we have engaged in vertically integrated natural product businesses in the US, Mexico, China, and Russia as well as in Korea. It all started in a small aloe field in Korea in 1976. Spanning only a small acreage, the field was cultivated in the spirit of our corporate philosophy and mission.

What’s even more valuable than our rapid business growth, which has drawn keen attention throughout the world, is our clear vision. The vision has been refined and continuously instilled into u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company. We aspire to be No.1 player in the world’s natural products industry on a solid business platform that is built to last. Along with our business strategic vision to be #1, the vision of building our workplace embedded with Namyang’s philosophy and culture has been equally important. We see our workplace as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and happiness together.

Celebrating the 28th birthday of Namyang, we launch this global corporate newsletter, *Univera Way*, to share our vision, value, and vitality. *Univera Way*, which will be published both in Korean and English, will serve as a medium for dialogue among the members of the Namyang family who spare no efforts to achieve our common goals worldwide. We have different races, languages, and geographical location. Nonetheless, I believe this modest circular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in overcoming such physical constraints and helping us to join forces to realize the vision.

“Univera” is the name of our subsidiary in the US. However, it has greater significance. It happened in the early 1990s. One day, I had a lengthy discussion with the late Chairman Yunho Lee, the founder of Namyang, to decide on a name for the US subsidiary. When we were brooding over several options, the meaning of Univera was particularly appealing. “Uni” means “single” or “the only one,” and “vera” represents “truth” or “brilliance.” When the two words are put together, it is translated as “the only truth.” It represents our commitment to take the only true path toward the mission of bringing nature’s best to mankind, which is our corporate philosophy. “Univera” was selected as the name of the US subsidiary without any hesitation. Upon making this decision, the founding Chairman and I mutually agreed to develop “Univera”, which has such significance, into a brand when we globalize our business in the future.

At last, the first issue of our global newsletter, which conveys the significance of “Univera”, has been published. I sincerely hope that *Univera Way* will serve as a constructive medium enabling the global Namyang Family to exchange vision and knowledge as well as sharing their joys and sorrows.

Congrat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Univera Way*!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staff of *Univera Way*, who had to overcome many difficulties of a new beginning to bring out this first newsletter.



A Welcome Party for Univera Hosted by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Washington

Inviting the executives of the US subsidiaries, President Byeong-hun Lee, and Managing Director Gyeong-su Yun, the Governor of Washington State hosted a party to commemorate Univera's relocation to the state of Washington at the State Congress Hall on January 16. About 100 stat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with 100 leading community figures, including the Korean Consul-General, attended the party. They paid keen attention to the presentation by the US subsidiary on ECONET.

NEW BUSINESS IN TOWN

Locke welcomes Univera



Gov. Gary Locke (center) presents a bottle of Washington wine as a gift to William Lee (left), Univera's chief executive officer, while Sen. Paull Shin, D-Edmonds (right), looks on at a news conference on the coming of Univera Inc. to Washington state Friday in Olympia.

The function served as an opportunity to win the full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The event was preceded by a governor's press conference, to which local broadcasting networks and the press (The Olympian) were invited. The press conference was reported by nation-wide broadcasting networks and press media.

Gary Locke, the governor of Washington State, presents a bottle of locally produced wine to President Byeong-hun Lee. To his right, Senator Hyo-beom Shin, of Korean descent, looks on with approval. The US subsidiaries has decided to relocate from Denver to Seattle by July this year and acquired a site spanning 40,000 pyong (XXX square yards) in Lacey. US subsidiaries will launch the new era of the Pacific Rim and continue to propagate our corporate philosophy "Bringing Nature's Best to Mankind" throughout the US.

Ground-breaking Ceremony for a New Namyang Aloe Office Building



On February 7, a ground-breaking ceremony was held for the new office building, which will be completed by next year. About 100 guest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Daeyang Construction, the prime contractor for the construction work, and hna Ongodang, an architect firm responsible for design and supervision, attended the ceremony. President Lee explained the significance of the new building, articulating that it would serve as a solid foundation for the future of the affiliates and their staff who have been involved in active discussions regarding the future roadmap of the company. The new office building will be located at Seongsu-dong where the aloe vera business first began. The building with six floors above ground and one basement floor will be built on a site.

The First ECONET SVC (Shared Value Course) Training for Newly Appointed Assistant Managers and Managers



On February 11 ~ 13, "ECONET SVC (Shared Value Course)" training for newly appointed assistant managers and managers was held at Unigen (Byeongcheon). The training aimed at building up the capabilities to perform roles required at each rank, cultivating leaders through essential basic training and level-specific training, and promoting unity and communication among ECONET subsidiaries. Upon the completion of the 1st training session, the 2nd round of "ECONET SVC (Shared Value Course)" targeting assistant managers and managers of the subsidiaries is slated for April 12-14.

Executive Workshop



The executives of the three Korean companies of ECONET received training on lecturing skills from February 19 through 21. In the workshop, the executives learned basic attitudes and training techniques they need to acquire before giving lectures in the employee and agency training sessions. Looking forward to fabulous lectures by the ECONET executives!

Knowledge Management Breakfast Meeting of the Executives of the Three Korean Companies



The executives of the three Korean companies of ECONET have been gathering for breakfast to hold seminars on knowledge management for the past four months. They are familiarizing themselves with management know-how on executing the strategic business of ECONET efficiently including the concept of knowledge management, case studies of knowledge management from the history of Namyang Aloe, an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xecutives in knowledge management.



April 5, 2020

'I wonder if any powerful politician could grow a single tree like this. ...
 Now, let's plant the trees of talented human being in our country.'
 I still vividly recall the moment that I met him first time 31 years ago.

By H.Y Sung, President & CEO of Univera, Inc. / U.S.A.

6 AM. Inside the Univera Corporate Jet, "ECONET Force One"

After tossing around, I awoke from the nap. I felt that I had a nap for a good few hours with the tiredness after wrapping up a continued business trips. I looked at my SPOT (Smart Personal Objects Technology) watch that has a built-in longitude sensor. It's 6 O'clock in the morning. Since I left Geneva, Switzerland, after lunch, I was probably flying right above the Siberian plains at this moment. Chairman Bill Lee, across from me, was in deep thought with his personal organizer opened as usual.

It seems like it was just yesterday when we built our Univera corporate campus right next to the Nestle's headquarter in Geneva. But, five years already has passed since then. Now, look at the Head of our European Operations. He was quite proud for himself. During the lunch in Geneva before we boarded on the plane, he introduced a retrospective episode humorously about the days when he had hard time of handling the complaints by the Nestle officers with respect to the Nestle employees' defects to Univera. We all laughed at and enjoyed his talk over the lunch.

Through the window, I saw beautiful giant cotton candy like clouds. It's the morning of April 5th. It seemed that the sun was rising as reddish glow illuminates the clouds. Our company's anniversary ceremony was scheduled to celebrate the success of being the world largest company in the natural product and lifestyle industry. ECONET Force One, was flying towards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At the 'ding-dong' alarm, I looked at my watch to find that a message has arrived. A 3D hologram appeared, and the person in charge of organizing the event showed up. He is a descendant of a Korean immigrant who fought for Korea's independence in Russia together with the famous Korean patriot, Ahn Jung-Geun.

He reported on the updates of the event status. Last night at the local time, the Head of our African Operations and the Head of American Operations arrived via a nonstop flight from Seattle to Vladivostok. He also reported that the Head of Oceania Operations and the Head of Asian Operations met together in Tokyo, and took a high-speed electric train, which was developed and built in Korea. They would arrive at 9:00 am after passing through the Korea-Japan undersea tunnel and PyungYang, the capital of old North Korea before unification.

7 AM. At the Ubiquitous Conference Room of ECONET Force One

Bill led the weekly "Vertical Integration" meeting over breakfast. The steamy tofu soup made from the soybeans of our Russia farm had fantastic flavor. Together with the orange dessert from our China farm, the breakfast was unbelievably tasty.

A 3D hologram of Antonio, the Global Chief Farming Officer, appeared and he gave the first briefing. His grandfather was one of those 1033 Koreans who, near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emigrated to the Henequen farm in Mexico to escape the oppressiv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These Koreans set sail to Mexico from Jemeulpo Port in 1905 with the hope that they would make a good living in their new country. His grandfather often told him about how he and other Koreans at that time worked like slaves in a Yucatan farm. It was a story that Antonio would never forget. Thus, when Antonio was put in charge of managing the aloe farm in Mexico, he was overwhelmed with speechless emotion.

Using the navigation system, he continued to report on our worldwide herb plantation. The farms in Texas, Mexico, China, Australia, Spain, and Italy... As if he was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Antonio knew all of the detail issues



about the numbers and status of the 100 plus herbs growing in our farms. Today's main agenda was of the Dole Pineapple's request for us to manage their farming. Our position is to charge 5 million dollars for the technology transfer, and a 5% royalty on Dole's sales revenues.

Next, the Global Chief Science Officer presented his briefing. He has been with the company for almost 10 years after quitting the dean position of the John Hopkins Medical School. After realizing the limitations of western medical science, he dedicated himself to lead the cutting-edge research in phytotherapy and alternative medicines. He also appeared on the cover of a recent Time magazine, which published an article about the fact that Univera finally outpaced Merck in the HTP screening technology. He was excited while he presented his picture on the Time cover page. He reported that five out of the 20 new drug candidates which we have filed for approval have been approved by the USA and EU FDAs.

Then, the 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 appeared on the 3D hologram. His briefing was presented through the SIS system. This system is very powerful.

Upon the delivery of a Univera product to a customer, the SIS system starts generating demand forecasts and predictions of future orders. Based on these predictions, the plans for the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lines are adjusted. Orders for the anti-inflammatory drugs recently launched skyrocketed, and appropriate measures were immediately taken accordingly to divide the plant workers into three separate shifts per day to keep the plant running 24/7.

However, even with these quick adjustments, the SIS system alerted us that the plant would be unable to meet the demands. Therefore, for those products with less than 10 million dollar annual gross sales, we decided to outsource them from sub contractors.

Then, the Global Chief Logistics Officer reported on the product delivery status. The shipping status of products was monitored in real-time by using a GPS-based navigation system. The routes of ships and cargo planes were indicated on a large map of the world. He clicked on a dot indicating the location of a ship sailing through the Antarctic sea. Instantly, information about that particular ship appeared on the screen. The ship is ECONET No. 25 and the destination is Chile. Information on the date of arrival and the kind of cargos that it is carrying also appeared simultaneously.

The Chief Sales & Marketing Officer gave the last report. Information on the current quarterly sales and a 3-year revenue forecasts appeared on the large screen for everyone to see. Sales in Africa has jumped tremendously. Our skin whitening cosmetic line is most popular in Africa. This officer is an

ethnic Korean whose family came from Yanbien, China, but he has the Hong Kong nationality. He made a joke at the end of his presentation. "I believe that over 40% of the world's population would probably work for Econet as distributors. Then, what about other companies? I am worried about how they would support themselves..."

The weekly meeting came to an end while we were hearing the pilot's announcement that we would be landing soon.

11 AM. At the "ECONET Field" stadium

As I walked into the field, a message flashed on a large screen to announce the arrival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one hour to deliver a congratulatory speech. The message appeared in six different languages. The first lady president in the Korean history was very impressed with our successful multinational company based in Korea that has grown into a global leader in the natural product industry. Announcement was made that the keynote speech by the Dean of the Alternative Medicine School at Chungkang International University, a Nobel Laureate, was rescheduled to the afternoon. The ceremony began with a video showing the founder who passed away 25 years ago. 'I wonder if any powerful politician could grow a single tree like this. ... Now, let's plant the trees of talented human being in our country.'

I still vividly recall the moment that I met him first time 31 years ago. He was a warm person full of benevolence. His dream to create a better world for everyone has come true, and we wished he could be here with us to see what we have added to his dream so far.

Chairman Bill Lee began to deliver his welcoming speech. "Twenty years ago, we took a small but never shaking step toward building a Good Company. ... Today, we are embarking on a new challenge to build a Great Company."

As his speech went on, the 100-year business plan and the new vision for the century to come, which could be envisioned only by him, approached to all of us as an everlasting hope. The look of his eyes was still the same as when I saw him first time 35 years ago in his twentieth; the unyielding attitude was still the same as when I saw him when he was burning old tires together with the Texas farm employees who showed up to protect the aloe plants from unexpected freeze; and the enthusiastic face was the still same as when I saw his smoked face early in the break of dawn after the long sleepless night burning the old tires.



March 6, 1981 Tomorrow is my first day in college. Classes for tomorrow are English Grammar,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and Chinese Level I. Chinese? Um...right. I selected Chinese as my second foreign language during class registration. Yes. I want to read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n the original text when I'm in university. (This was the very beginning of my ties to "Chinese" and "China." Now, nineteen years later...)

June 21, 2000 At last, I have come to China today. Adviser Cheng-gi Lee greeted me when I arrived at the Sanya

July 20, 2000 I have finally completed setting up the office equipment in the new office today. Beginning tomorrow, I'll work in the new office rented just last week. There were more luxurious options, but this is fine as a start. I am totally committed to building up a really sound company from top to bottom, not just a company extravagant in appearance. The hot weather has taken my appetite. I had only noodles for lunch as well as dinner. Nothing compares to Korean noodles. Someone said, "If you give up everything, you gain everything." So, I'll have no expectations as regards food

I must not fall into a self-imposed morose. I should always take care of and believe in myself. I have always valued "challenge and courage." Let's not forget that I am challenging myself to the courage that made me come to China.

By Jeff Han, General Manager of Hainan Aloecorp & Namyang /China

Airport. From Sanya I trekked to Haikou and checked into the Huandao Hotel. It's so hot. Why is it so hot? From now on, this is where I'll be working. What impact would "China" have in my life and future? (Adviser Cheng-gi Lee is still a crucial partner to me in building up the Chinese business.)

June 22, 2000 My dear Sook-ha

I wonder whether you were able to sleep well last night. Perhaps, you couldn't sleep well because it was the first night after I had left for China. I'm in relatively good shape. I am sorry to have left you behind, but I am looking forward to my new assignment because this is what I have always wanted to do. I am confident that this decision will "bring good results to every member of our family." I once again appreciate your respecting my decision.

With love from your husband and the father of Gwon-hee and Jin-ho

June 23, 2000 Dear Sang-joon,

How are things going over there?

I'm writing this letter because I miss you so much. Gwon-hee says that although he was really sad on the day you left, he is already looking forward to Chuseok when you'll be coming back for a visit. When I told him that I missed you, Jin-ho brought me the fax message you sent yesterday. I guess we all miss each other very much. Take care. Sook-ha

here. Then, everything will taste good.

August 11, 2000 I haven't been able to go outside for two days now. It has poured so much in the past 3-4 days that streets around my house are flooded. I gave some instructions on the phone, but I still need to go to the office soon. Because I couldn't go out for two days, my food stock was getting low. Gi-seol Shin brought me rice and side dishes in the evening. (He is the first staff member the Chinese subsidiary hired.)

September 2, 2000 I have been surveying potential farm sites in the past week. During this trip, I looked around sites in the western part of Hainandao. Nothing was satisfactory. Since moving into the new office and hiring two staff members (Gi-seol Shin and Katie) in July, I have been in search of a farm site for two and a half months. I should be patient. The decision on a farm site is most critical to the company. Such an important task cannot be accomplished overnight.

September 15, 2000 My dear son Sang-joon,

I wish you would abide by the following tenets.

One, take an adequate portion of meat but with a lot of vegetable.

Two, try to quit smoking and drinking. Spend the extra time on learning Chinese and English. (Knowledge is wealth.)

Three, always put on a straw hat and long-sleeved shirts

when you go out.

Four, be particularly careful about women. (Always keep this in mind.) Do not fall into their temptation.

Five, always have an open discussion with your boss when you are about to take some action (honesty).

Six, when faced with troubles and difficulties, remember that those who vow "patience" three times win honor.

Seven, think about your dear wife (Sook-ha), Gwon-hee, and Jin-ho. Then, I believe you can accomplish all.

Your father and mother wish you success. We are confident that you will make good on your potential. (Always be true and honest) Health is number one. Health is number two. Health is everything. There is no happiness without health.

September 15, 2000 (August 18 by the lunar calendar)

From your father (My father gave me this letter when I went to Korea to celebrate Chuseok.)

September 20, 2000 Last week, I visited Korea for the first time since I had come to China. I went to spend the Chuseok holidays. Gwon-hee and Jin-ho were thrilled to see me. However, my parents and Sook-ha seemed concerned about my appearance. I was extremely tanned because I had been out in the sun so much in search of farm sites. I also lost a lot of weight from perspiring. I guess I looked terrible. Anyway, let's get back to work. It is not easy having two homes? one in Korea and another in China.

October 9, 2000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Haikou Office of Aloecorp will take place tomorrow. The President, Mick Anderson (President of Aloecorp), and Jerry (head of Aloecorp Farm) arrived at Haikou. I tried hard to make all preparations perfectly. I hope everything goes well. It's 11:40 PM now. Gi-seol and I are going over the final checklist for tomorrow's opening ceremony while fighting the heat and mosquitoes. Air-conditioning goes off at 5:30 in the afternoon in this foolish office.

January 1, 2001 Today is the first day of a new year. I wonder how things will unfold this year. It is imperative that I find a good farm site and sign a contract within this year. I might have wasted too much time if I can't find one by the end of this year. I had tteokguk (rice cake soup - a traditional Korean food for the New Year's Day) with Gi-seol this morning. I feel very lonesome being all by myself on the first night of a new year.

April 18, 2001 I'm so frustrated. I'm exhausted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from endless forays into the countryside in search of a farm site. Adviser Lee must be dead tired also. Katie has not come to work for three days since she stormed out the office when I reprimanded her. She must have been very upset because in China people don't generally reprimand workers even if it is with good intentions of making you a better worker. I scolded her because I care about her and wanted her to be a more proficient person, but I guess local people think differently. I

should be more sensitive to Chinese culture. I should ask Adviser Lee to bring Katie tomorrow. I feel really tired today.

June 9, 2001 It's Saturday afternoon and I played soccer with some Chinese friends. Jogging after work and weekend soccer practices seem to keep my life and thinking on the right track. I don't believe my work in China will be finished in 3-4 years. Let's take a deep breath. I will be able to bear the loneliness of being away from home only if I am strong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I must not fall into a self-imposed morose. I should always take care of and believe in myself. I have always valued "challenge and courage." Let's not forget that I am challenging myself to the courage that made me come to China.

October 19, 2001 I am quite sure that I had surveyed almost every potential site in Hainandao. I surveyed forty sites spanning over 500,000 pyong in the past year and a half. We have some strict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 farm site. First, soil quality should be appropriate for cultivating aloe vera. Second, abundant water resource should be available. Third, the site should have beautiful surroundings. Fourth, land price should be reasonable. Fifth, the site should be located within 80 km from Sanya. In the most recent outing, I completed the survey of a site in Riyue Bay, which is near the seashore. The head of the Land Bureau in the Wanning City Government said that the site is available. Since the company president is coming to Hainandao next month, I should brief him on the progress. By any chance, if the internal screening reveals that the site is inappropriate, should I shut down the Haikou Office and go back to Korea?

November 20, 2001 We did it! The internal screening showed that the Riyue Bay site is appropriate for our business. I have to quickly inform the Wanning City Government that we will buy the site and brief them on our business plan. I've put so much time and efforts into this project...a gateway...at last.

November 21, 2001 This cannot possibly be happening. I had a meeting with Secretary Zheng at the Wanning City Government today. He says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sell the Riyue Bay site to our company. Because the site is the last available plot in Hainandao, the Wanning City Government has its own development plan. (The site was once sold to a Chinese company, but the Communist Party-led Chinese government appropriated the site on the grounds that the promised investment had not been made). I explained to them that we would develop the site into a world-renowned aloe vera mecca, but they kept repeating that they would never give us the land. They said our company was a land speculator. This was totally unexpected. I had stopped smoking for one and a half years since arriving in China. After the meeting with Secretary Zheng, I started smoking again. Damn it! I'm going to go

see him again tomorrow.

December 18, 2001 I have been a daily visitor to the Wanning City Government to meet Secretary Zheng for nearly a month. Since the last meeting, he has been avoiding me. Again, I waited all day long today in vain. I'm going again tomorrow. (It takes about two hours from Haikou to Wanning.)

January 10, 2002 I had a call from Secretary Zheng this afternoon requesting a meeting tomorrow morning. He will meet me at last. Will he tell me that the site is available for us? I'll know by tomorrow...

January 11, 2002 I had the second meeting with Secretary Zheng at a seafood place in the evening. He said that a provisional contract had already been signed with a third party for the site our company wants to buy. The third party is a leading aviation company in Hainandao. In return for the site, this company will build a People's Plaza in Wanning, develop a site for apartments, and pave the access road to Gangnagwon Hotel. Secretary Zheng said that the company had already begun paving the road, and added that providing the site to us is unlikely. This is just nonsense! I argued that this is unacceptable. How much time had I put into this undertaking! I kept on saying "no" to him and returned to Haikou. What should I do? Let's go again tomorrow. (The second encounter with Secretary Zheng ended up in a quarrel.)

January 21, 2002 Even though I keep showing up at the Wanning City Government, Secretary Zheng seldom (perhaps, once a week) agrees to meet with Adviser Lee and me. As I just wait in the Secretary's meeting room patiently, he runs into me inevitably. When I had a brief meeting with him, I presented our business plan that I had prepared earlier. I returned home late. I feel unusually lonesome and depressed today.

February 4, 2002 All of a sudden, Secretary Zheng requested a meeting in the morning. When I hurried to his office, he said that he would give us the Riyue Bay site. He wanted to sign a contract right away. I was thrilled to hear the news, but I'm glad I was able to control my facial expression. I told him some procedures and steps are required before signing a contract because this is a company affair and not a personal decision. I promised him to expedite the process so we could sign the contract and make an initial payment as soon as possible. Secretary Zheng explained that if we were really a land speculator, we would have left at the news that a provisional contract had been signed with a third party. However, he came to believe that we really must be a company engaged in the aloe vera business since we were still around. He had persuaded the president of the aviation company through an all-night meeting and called me this morning to communicate the decision. At any rate, I'd better expedite the signing of the contract. Who knows how things might change again?

February 20, 2002 At last, a contract for the purchase of the Riyue Bay site was signed at the Conference Room of the Hainan Province Joint Venture Agency. A simple ceremony attended by Secretary Zheng, the mayor of Wanning City, the head of Hainan Province Joint Venture Agency, Adviser Lee, and myself took care of the business. It had taken nearly one year and eight months to reach the milestone achieved today. This is a defining moment for our business in China. As soon as the contract was signed in the morning, I went to the Riyue Bay site. Each and every tree and plant on the site seemed very vital knowing that this is our land now.



The view of the Riyue Bay site

June 28, 2002 We moved into a new office today. An office in a building in downtown Haikou had been renovated for the past two months. Chinese people believe that choosing an auspicious moving date and time is crucial to the prosperity of a company. (In Chinese this is called 'Paijai', meaning "discovery of assets" literally.) We went to a well-known astrologer in Hainandao to pick our moving date and time. The moving time was decided as 7:30 in the morning. I placed my desk in front of the door of the new office early in the morning, and the entire staff waited. We entered the office at 7:30 sharp. I hope we all "discover assets."

August 23, 2002 The site on Riyue Bay, for which we signed the contract in February, isn't really large enough to initiate a range of aloe vera businesses. I think we need to secure a site in Jiaxin Town across an expressway from the Riyue Bay site. I believe we need to have both sites to build various facilities including an aloe vera botanical garden, aloe vera museum, and a training center for visitors and to develop a farm. Securing the Riyue Bay site was challenging enough. What could be worse than that awful experience? Let's get the site in Jiaxin Town and create the world's best aloe vera mecca.

April 14, 2003 Because farmer cooperatives own the land in Jiaxin Town, it is very difficult to purchase land. The process is moving very slowly. The site is owned by 18 production units (agricultural production units, 420 households in total). Over 2/3 of all households need to agree in order to purchase a plot owned by a farm cooperative. It will take more time, but I need to be patient.

Haste makes waste. It's better to confirm every detail although it may be tedious. I'll invest in "time" than in "money" in China. Then, I'll be more carefree than the Chinese are. That's a lesson I learned on my own while working in China for nearly two years now.

June 13, 2003 The Jiaxin Town Government and Wanning City Government suggested calculating the compensation for trees and plants based on an average value per pyong. I don't understand this at all. Why do we need to pay them in average value when we are compensating for trees and plants on the site? We have to pay money for every single palm tree, pinglang tree, and etc. If there is no shortcut, the traditional and honest approach is the best policy. I'd prefer to tie a rope around each tree as a mark to count them. It won't be easy, but I think two months will be enough. In addition, while counting each tree, I could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site and know exactly what and how many trees we have. (On the lower part of all trees on the site, there are still traces of red paint that was used to mark them.)

October 7, 2003 The initial estimation of two months has now stretched to four months. I finally finished counting and compensated the sellers for the trees today. We purchased 3,656 palm trees, 63,117 pinglang trees, 11,052 banana trees, and 16,120 other trees. The exact total is 93,945 trees. I returned from Jiaxin Town after making final payment. At long last, the site is truly ours. When I walked out to the site, it felt as if "my soles were sticking to the land." It has been really a long time since I felt so elated and refreshed like today.

January 1, 2004 My prayers for 2004

One, let Sook-ha place top priority on rearing the children, but st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start a career she desires. Two, let Gwon-hee play more sports and grow up as a well-behaved child as he is in a higher grade now. Three, let Jin-ho be healthy and start a good school life with a respectable teacher and good friends.

Four, let our family overcome difficulties, no matter how painful they may be, with wisdom and courage and keep them out of danger (in particular, children).

Five, let me better understand and love Sook-ha, my soul mate, and my children and discipline myself to control my blood pressure and exercise regularly.

Six, let my ability be recognized at work to lay a foundation for better opportunities and to work with pleasant people.

January 9, 2004 It has been two years since we presented the Namyang Aloe Sales Bureau Director Seminar in Hainandao in 2002. Today,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bureau directors came to the farm in Jiaxin Town to plant our first aloe vera in China. It is a truly significant day for me. I believe I found a solid answer to the question I asked myself when I first arrived in China: "What impact would 'China' have in my life and future?" I have no fear

of developing an aloe vera farm. I'll just do my best. "China, you be there. You don't need to come to me, I'll rush to you."



Planting the first aloe vera

I have summarized the journal I kept since arriving in China in June 2000. The past 3 years and 10 months are remembered as very hectic: finding a farm site, increasing the sales of raw aloe vera material, going to school to study Chinese, traveling back and forth from China to Korea, immersing myself in a new culture, and so much more. All these were preparatory measures for the full launch of the business. From this point forward, we are up and running. Many tasks await me again in this year: increase the sales of raw aloe vera material, construction of an aloe vera farm in Jiaxin Town, construction of an aloe vera powder plant, launch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at the Riyue Bay site, production of dried aloe vera, etc. When I imagine the Chinese subsidiary in Hainandao ten years from now, I get so excited that I get the jitters. The subsidiary in China will be a true mecca of aloe vera, disseminating everything about aloe vera throughout the world.



The staff of the Chinese subsidiary

The Chinese subsidiary, which had only me at its outset, now has 56 staff members: 13 office personnel, 18 in the drying plant, and 25 at the Jiaxin Town aloe vera farm. Turnover rate is high in China. People usually do not work at the same place for more than 1-2 years. However, the current staff has been working with me over 2-3 years and, moreover, they are hard workers. I really appreciate them.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and happiness together." I'll make this come true.

On behalf of the entire staff, I take great pleasure in introducing the Russian subsidiaries in the first newsletter that covers the overseas subsidiaries of ECONET. The publication of this newsletter, which deals with overseas subsidiaries as well as companies in Korea, is credited to the Management Strategy BU. However, it is a pity that I, an engineering major, was chosen to write this

those of Korean airports in the late 60s or early 70s.

Moreover, because of the long hostilities between the US and Russia, Russian government officials don't speak English at all. (Although it would not have been a great help to me anyway even if they could communicate in English.) To think of it now, it was a very bold act to make the first trip alone.

I am striving hard to achieve something that I hope someday my child will be proud of.

I flashed back on the eleven years I have spent at various affiliates. At the same time, I felt the pressure of my responsibilities to build up the Russian subsidiaries to a level that other affiliates would be proud of.

By Wonmo Koo, Director of Unigen Russia / Russia

first article. It will be a loss for the subsidiaries in Russia in promoting themselves.

I was appointed as the president of the subsidiaries in Russia on January 1, 2004. I felt a great deal of anxiety and concerns while packing my bags. I regretted that I couldn't spare the time to dine out with my family and friends before my departure due to my busy schedule. But when I arrived in Russia on February 4, I was comforted by the fact that the subsidiaries are just a two-hour distance by plane from Korea.

When my plane landed at the Vladivostok Airport in Far East Russia, I flashed back on the eleven years I spent at various affiliates of the Namyang Corporation. At the same time, I felt the pressure of my responsibilities to build up the Russian subsidiaries to a level that other affiliates would be proud of. To be honest, I was distressed as to how I was going to survive in this city where injustice and corruption are rampant and organized crime runs wild.

The Vladivostok Airport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airports I've seen. First of all, its capacity is so small that it can only accommodate the passengers of a single flight at a time. In the event two planes land simultaneously because one of the flights was delayed, it would take 3-4 hours to go through customs. Facilities at the airport are comparable to

Nevertheless, since I am in Russia now, I am striving hard to achieve something that I hope, someday, my child would be proud of.

The Far East Russia suffers from a shortage of water. It rarely snowed this winter. I was concerned about the effects of the drought in the forthcoming spring. Fortunately, on the day I arrived, it snowed over 40 cm, which was a very good omen. The moment I stepped down from the plane, a freezing wind pierced right through me. However, it wasn't chilly enough to cool my enthusiasm in looking forward to new accomplishments as I gazed at the snow-covered landscape.

The staff of the Russian subsidiaries welcomed me at the airport and we drove carefully through the snow to the office. Although I had traveled that road many times, that particular ride seemed as if it was all new to me. With the pressures of a new challenge and hopes from the snow swirling in my mind, I barely remember how the two-hour drive passed by.

As soon as I arrived at the office in the evening, I headed for Slavyanka where a county office is located. The city is about 300 km from our office and is near a farm. As my first official task upon my arrival in Russia, I attended a government relations affair around 11 o'clock at night. I

plan to introduce my first government relations affair as a cover story in a newsletter later on.

I left Slavyanka for the Vladivostok office at six in the morning next day. I met the entire staff of the Russian subsidiaries and exchanged greetings. Although they all welcomed me warmly, I clearly sensed that they were all on edge about how to cope with a boss who could barely communicate in their language. Likewise, fearing that I might have to actually strike up a conversation in Russian, I could hardly remember the names of the staff on that day to my great frustration.

When you embark in a search for an apartment in Vladivostok, security must be a primary concern. Finding a safe apartment was not an easy chore. Moreover, in Russia where resources are scarce, apartment rents are outrageous. However, thanks to much trouble by the staff at the office, I was able to rent a relatively quiet and clean apartment.

Because the area is concentrated with many Americans and Japanese, I am always careful in my behavior not to bring embarrassment to Korea and Korean people. I understand that this newsletter will be distributed to a subsidiary in the US also. I am sorry to say this but because many Americans live in the neighborhood, concerns about possible acts of terror still linger.

I'll stop elaborating my personal story here and begin introducing the subsidiaries in Russia.

First of all, there are three corporations in Russia. "Unigen-Russia", a holding company, controls "Univera-Russia" and "Bon-Sam" (a farming corporation). In order to secure farmland lawfully in Russia, three companies were established.

The three companies employ a total of 17 staff members: eight for administration and nine for farming and technical functions at the farm site.

Russia is so cold in the winter that the ground is frozen down to 1.5 meters. Therefore, workers at the farm take a long leave in the winter.

This photograph shows only the staff working in Vladivostok. (Since this newsletter will be distributed worldwide, they dressed up to look nice in the photograph. It took about an hour just to get them ready.)

The photograph shown below was taken at a lighthouse that services the Vladivostok port, which is the only ice-free harbor in Russia. The port is only a five-minute distance from our office. The frozen sea can be seen in the background. (Under Russian standards, a port is not frozen if a ship can break the ice for navigation.)



From right to left

- Lipavskaya Nataliya Darafevna (Chief accountant: born in 1953, married)
- Shemenduk Walentin Yevgenivich (Driver: born in 1954, married)
- Yoon Svetlana Anatolievna (Accountant: born in 1976, unmarried)
- Protopapaba Olga Anatolievna (Accounting Assistant: born in 1973, unmarried)
- Litvinov Alek Alexandrovich (Trading: born in 1978, married)
- Kim Yevgenii Anatolievich (Interpreter and General Affairs: born in 1981, unmarried)

I'm standing across from the group taking the photograph. No one was around to take this picture for us because it was the heart of winter.

Overseas subsidiaries in Russia are stabilizing as administrative procedures become more systemized. Managing a farming corporation is very difficult in Russia. Fortunately,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re shifting in a direction of promoting farming, and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s improving rapidly.

The entire staff at the office coveted the team leader summer training held in Russia in 2003. They all felt proud of working at a good company. This year, it is planned that one of Russian staff members will attend the training. It has already been one month since I arrived here. I sometimes become impatient and give a hard time to the staff in vain as a farm development project spanning 2150 ha becomes imminent. I feel greatly honored to get acquainted with the staff of every affiliate through this newslette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Russian subsidiari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in the most difficult environment among ECONET affiliates, are deeply appreciated. Thank you.



Wonmo Koo

A Transformation from a Naval Officer to a Practiced Scientist - And Still Single

From time to time, a red marine uniform can be glimpsed at the Unigen R&D Center in Byeongcheon. It's none other than Researcher Youngmoon Heo, an ex-marine officer who began a new life as a scientist. Youngmoon, who deals mostly in animal experiments, is past marriageable age but still single. To the question, "Why aren't you married yet?" he jokingly answers, "I am married to the rats in the laboratory." He is affable as a next-door neighbor and his warm heart shows in his caring for insignificant animals.

A Turning Point in My Life

It has been already nearly four years since he began a new life as a scientist after five years of military service as a career officer. He volunteered to be a naval officer to carry on the wishes of his late father. He took pride in building up his career as a ROK military officer including many years as a marine, which is widely acknowledged as particularly challenging. However, he could not forget his true calling which was to become a scientist contributing to the Korean research industry. He had to make a tough decision in the very middle stage of his life.

Although he had majored in microbiology in university, he faced a barrier much tougher than he had expected when he took his first step into a new career. Perhaps, his military life had been too long. The greatest hardship was that he was quite older than other new recruits. His new position as a researcher did not recognize his experience in the military.

He swallowed his pride and devoted himself to research activities to make his dream come true even though he was treated the same as his younger colleagues. He worked hard. Thanks to such painstaking efforts, his competence as a researcher was acknowledged when he was selected as Unigen's best employee in no more than a year after joining the company.

Making Dreams Come to at Unigen

The Bioassay & Discovery Team is in charge of assessing the pharmacological efficacy of natural extracts and tracking their compounds by using GenoActive™ technology, which is one of core technologies of the Unigen R&D Center. In this team, he is mostly involved in animal experiments. When he was interviewed, he was experimenting the kinesis of a rat in the animal laboratory. It was a chance to see him in action. He explained that it was an experiment to see whether an injection of a natural extract improved memory faculty. A big rat, the size of a grown man's hand, was put into a small pool. Then, the time it took for the rat to swim back to its starting point was measured. He seemed very thoughtful when he was drying and smoothing down the wet rat with a towel after the experiment. He said that he is also engaged in an experiment of directly injecting natural extracts



containing effective substances and sampling lungs, blood vessels, and skin tissues to survey disease metabolism. He said, "Although it is for the sake of experimentation, I don't feel comfortable taking animals lives intentionally. I hope they rest in peace." From his remarks, I could sense his caring thoughts toward animals. Since joining Unigen, he has practically given up his weekends. Due to the nature of animal experiments, animals need to be provided with food and water regularly. Occasionally, cages have to be cleaned and replaced. Therefore, he alternates weekend shifts with his research colleagues. "At first, I was annoyed and unhappy. Nowadays, however, when I'm at home on off-duty weekends, the animals are always on my mind. I keep fretting about whether they are eating well and not getting sick. It's not only me, everybody in the Animal Laboratory works hard. We only hope for the best results."

Sports a Different Kind of Ecstasy

He excels in sports as well as in research. Young-moon is seen everyday after work in the Fitness Club on the 3rd floor of Byeongcheon R&D Center. He does not concentrate on his workout only. He advises his colleagues on how to get the most out of the exercise equipment and other good ways to work out. He is dubbed Unigen's "workout buff." His diligence was demonstrated once again when he recently posted a set of illustrations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that stress the importance of stretching.



10 Years from Now

To the question as to what is most important in his life, he answers without any hesitation, "Above all, human relationship." He said that work is indeed important, a big part of one's life. However, he believes that what is even more important than work is the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you work with. He confessed that although he knows how to get along with guys because he spent a lot of time with them, he is not quite sure of himself when he tries to relate to women. He added that if anybody had any preconceived notions about him, they should ignore such and just treat him naturally.

When asked what he might be doing in ten years, he said, "I want to build up my current research activities and earn the status of a distinguished researcher. Above all, I want to have a happy family I am proud of." Lastly, he added a small wish that his friends and colleagues would think of Youngmoon Heo as "a caring, thoughtful person."

By YoungJoo Hong, Staff of Unigen, Inc./Korea/Repo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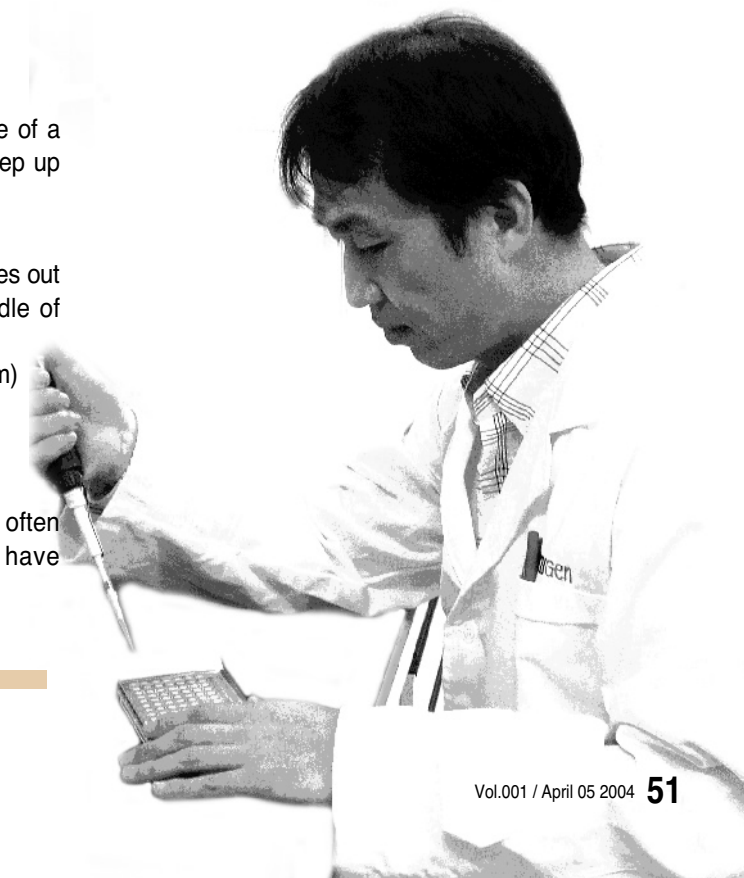
Tip! Tip! Tip!

"Congratulations for being selected as the employee of a month! Sorry for making you work so hard. Let's keep up the good work!!"
(Seongil Do, Ph.D, Bioassay & Diversity Team leader)

"Youngmoon? I don't think he ever feels cold. He goes out without his jacket saying it's too warm in the middle of winter. Please make him stop!"
(Researcher Kyuongsu Cha, Research Support Team)

"Youngmoon, please get married!"
(Manager Gilsang Yoon, a dormitory roommate)

"You get so wrapped up in your experiments and often miss meals. Still, come to cafeteria. I'll always have something for you."
(Heeja Ha, a company cafeteria nutritionist)



Company News



Tidbits from ECONET Correspondents

1) Standardization of "ECONET"

While "ECONET" was the standard used in Korea, "EcoNet" was used in the US. Now, the terminology has been standardized to "ECONET" using upper cases only. In addition, "ECONETIAN" is a standard terminology referring to people involved in the ECONET.

2) Event Celebrating the 28th Anniversary of the Company Founding (Anniversary: April 5, 2004)

The "Daedong Grand Fete" is planned to commemorate the 28th anniversary of the Company and bring together all ECONETIAN. Hope it serves as a splendid occasion promoting friendship rather than a competition among subsidiaries.

- Date : April, 3, 2004, 09:00~15:00
- Place :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 Employees to be recognized : (with 10 years of continuous service): Jinhee Kim, Dongsu Seol, Sangjun Han, Yeonja Kim, Sangseob Park, Byeonguk Yang

※ In the next issue, photographs from the Grand Fete as well as a review of the Anniversary Event will be waiting for you.

3) Donation of 200,000 won by the Colleague Association for the Foundation of the Love-Sharing Club

- (Delivered by the Chairman of the Colleague Association, Giljong Wu)
Anticipate even greater support from the Colleague Association to engage in meaningful activities in the future.

4) Snowfall Disaster on March 5, 2004 - Worst Ever in 100 Years

- Namyang Aloe - On March 6 (Saturday), the Sales Consultant Capability Enhancement Training was held at the Daejeon Training Site. Despite paralyzed traffic conditions in downtown Daejeon, a blocked expressway, and a derailed train, the attendance rate of sales consultants was very high.
- Namyang - A tent in Jincheon collapsed at 12:55. Fortunately, there were no casualties.
- Unigen - Eight colleagues who couldn't go home on Saturday spent the night in the dormitory. (However, not enough food at the cafeteria!)
Fortunately, no major damage. ^^

5) Subsidies for Educational Expenses

- Kindergarten - 360,000 won per year to the five-year-olds or younger (90,000 won provided in each quarter) provided
- Middle school - the School Support Fee subsidized
- High school - the full amount of tuition and School Support Fee subsidized
- University - scholarships to the employees and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who enter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Required GPA: B or higher)

6) Consumer Loan Offerings by the Colleague Association

- Loans up to 5 million won at an annual interest rate of 6% are available from the Colleague Association.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ECONET-Wide News!

■ Namyang Aloe Division News and Miscellaneous Reports

◆ Division News

1) Marketing Planning Team

- A new product will be launched with the same loving care as holding a newborn baby. The product is effective in increasing vitality and stimulating energy metabolism, to make you feel energetic and bouncy like after a satisfying workout.
- "One More Aloe Truth Campaign," which continued from March 1 through 31, has ended. We are busy collecting and compiling memoirs on health planner recruiting experiences.

2) Strategy Planning Team

- Sales Consultant Training Heats Up
On March 6, the Capability Enhancement Training for sales consultants took place at the Daejeon Training Site. This was the first session and the program will continue for six months with two sessions each month. From Unigen, Manager Byeonguk Yang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Personnel from Namyang will also participate in coming sessions.

3) Customer Support Team

- As an effort to promote the new product, product promotion DM will be sent out to customers registered at the head office.

◆ Miscellaneous Reports

- Welcome back!
We extend a warm welcome to Seon-hye Park, who is back at work as the mother of a healthy son!
- Congratulations on future parenthood!
SungGun Oh of the Product Logistics Unit is getting ready for fatherhood. (Due in April)
Eunjung Kwak (Assistant Manager) of the Sales BU is looking forward to motherhood. (Due in June)
♥ Wishing you healthy and lovely babies! ♥
- Recruitment for Namyang Aloe Cheering Team
Basketball games are played at Han Riverside Park every Saturday between the sales teams and non-sales teams. We need supporters for these games.
◇ Deadline? : Till everybody signs up
◇ How many? : Everybody who signs up. (Female applicants greatly welcomed.)
- Jinwoo Sim Selected as the Namyang Aloe "Cool & Jjang" of the Month in February
The Namyang Aloe New Culture Initiative Committee selected Jinwoo Sim (Supervisor) of the Jungbu Sales Team as the "Cool & Jjang" of the Month in February. His positive attitude, pleasant smiles for all colleagues and customers, unmatched popularity in his agency, delightful personality, and outstanding performance at work won all around support from many bosses, colleagues, and younger staff members.
(What is Cool & Jjang?: "Relay Recommendation of Cool & Jjangs" is one of the culture code programs to establish a new corporate culture at Namyang Aloe. The program is designed to recognize colleagues who deserve praise or set a good example and award one employee as the Cool & Jjang of the month. It aims to foster a more cohesive working environment and culture where everybody enjoys each other and to acknowledge the talent desired by Namyang Aloe. The winners of the monthly Cool & Jjang will compete again for the Quarterly Cool & Jjang and get a chance to win a framed caricature with well-wishing messages from colleagues.)
- Blood Drive to Help the Child of a Planner (Feb. 24 ~ Mar. 10)
Namyang Aloe has launched a blood donation campaign to help Daeho Kim (10), the son of Jeonghee Choi (Planner in the Singumi Sales Bureau), who is scheduled to have a bone marrow transplant at Yeouido St. Mary's Hospital in Seoul in mid-March. He is suffering from aplastic anemia. For a stable supply of blood,

Daeho needs about 20 donors of blood type O. Because a donor has to come to the hospital when the patient needs a blood transfusion, head office and agencies in Seoul are leading the campaign. Keeping true to the philosophy of a "Caring Company," Namyang Aloe will gladly excuse donors from work if they are requested to make a blood donation during working hours.

● "One More Aloe Truth" Campaign

On March 11, thirty staff members of Namyang Aloe were assigned to nine agencies in Seoul and the Gyeongin area including the Geondae Agency to engage in street campaigns in collaboration with health planners. This was a part of the "One More Aloe Truth!" campaign that continued for a month in March at the IMC level under this year's business policy of "Action Win-Win 2004." On March 11, personnel from the head office joined the campaign alongside agencies in the spirit of "Action Win-Win." Each agency selected a nearby area with the highest pedestrian traffic and distributed leaflets and samples to customers in person to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dates of various customer events and offer promotional services such as a health checklist. Namyang Aloe expects this campaign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NTS and build close ties and trust between the head office and agencies.

■ Namyang News

◆ Division News

1) Management Information Team

- Selected team members for ERP TFT (March) / ERP Kick-off (April)

2) Management Support Team

- 3/15~3/18: Visit to the Japanese Health Fair (Participants: Kyehwan Ahn, Jungsook Oh, and Taehyung Jo)
- 3/24~3/28: Visit to the Hainandao landscape architecture construction works (Participants: Sichan Lee and Jinok Choi (President of Uni Farm))
- Plant tour by Namyang Aloe Agencies: 3/18, 3/19, 3/26, 3/30 (about 350 people in total)
- Plant tour by the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3/26, 4/2
- Food Team: Production of a new vitamin product (March)

3) Management Strategy BU

- The 2nd ECONET SVC Training

Upon the completion of the 1st ECONET SVC Training (newly-appointed assistant managers and managers), the 2nd ECONET SVC Training will be h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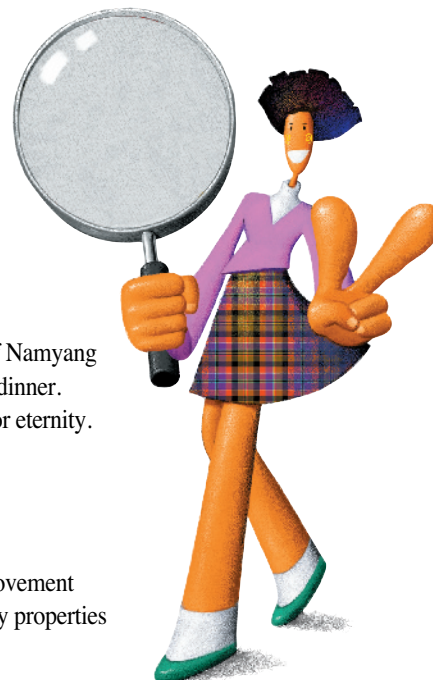
- Participants : Team-level assistant managers, managers, and chief managers who have not completed the ECONET SVC Training
- Date : April 12~14 (2 nights and 3 days)
- Place : TBA
- Agenda : Based on the first Training sessions
(1.ECONET VISION 2.Changes Management 3.Conference techniques)

◆ Miscellaneous Reports

- Trip to Hainandao China to be awarded to the winners of the Best Employee of the Year Award for 2003 (March 4~7) • Winners: Hongman Kim and Jaeyoon Lee
- Housewarming Party by Jinyeong Kim of the Research Team on March 11 (Thu.)
Jinyeong Kim (Assistant Manager), who was married on February 1, invited 35 staff members of Namyang (including Byeongyul Kim, the President of Jeonggwang Printing) and served a very sumptuous dinner. A fabulous time was had by all ^^! Wishing your home will be filled with joy and happiness for eternity.

■ Unigen News

- Patent application
No. 0417244 Pharmacological compound containing bamboo extracts for blood circulation improvement
No. 0417243 Pharmacological compound containing bamboo extracts of active anti-inflammatory propertie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eases



● New Product UG 10

UG 10 is a ginseng-based new substance with the contents of 10 types of ginsenosides, which are all extracted from ginseng and red ginseng, in a combined ratio of over 4%. Through strict quality control of the 10 types of ginsenosides, which are the major effectual ingredients in ginseng, UG 10 is designed to maximize the efficacy of ginseng. The quality of the products made from this substance is assured by specifying the contents of each ginsenoside, which facilitates the prescribing of various health substances. As a basic substance for health supplements, it is designed to maximize the efficacy of such health substances. For instance, in a joint trail with Namyang Aloe, we used this as a basic substance together with vitamins and mineral substances for a nutrition supplementary health product. This new product that will boost vitality by promoting active energy metabolism and nutritional control will be launched in April.

■ The US Subsidiary News

● Aloecorp Participates in the Natural Products Expo West

The Natural Products Expo West, which is the largest of such events in the world with four decades of history and tradition, was held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in California on March 17 - 20. More than 2,500 companies involved in natural products including health supplements, cosmetics, and organic food & beverages hosted booths. The Expo was also attended by 13,000 buying companies.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amounted to 36,000 people from 86 countries. The Expo will continue in Europe in June, Eastern Coast of the US in October, and Hong Kong in December. Backed by the baby boomers' penchant for natural therapies and alternative medicine and the steady, rapid growth of the global natural product business, various top quality products leveraging the latest technology were introduced this year. Aloecorp, which has consistently participated in this Expo for the past decade, hosted a joint booth with Unigen East and was once again widely acknowledged as the supplier of the world's finest quality raw aloe vera material. Moreover, as the representatives of ECONET, Vice President Youngtae Kim, Chief Manager Jungsoo Ye, and Manager Greg Kim of Namyang also participated in the Expo, clearly showing that we are a global player in aloe vera-based natural products.



2004 Natural Products Expo West

● The US Holding Company Univera Acquires Site for New Building

Univera acquired a site spanning 50,000 pyong (200,000 square yards) in Lacey, Washington in December 2003. The site will house a new company building. The selection was made based on five years of intensive search of the entire US, which showed Lacey to be the most nature-friendly in the US, has the shortest distance to Asia in terms of logistics, and boasts the best residential environment. In addition, aggressive lobbying by the Governor of Washington state and Senator Hyobeom Shin as well as strong support by the state government were influential in arriving at the decision. Univera plans to build a new company building, production facilities, and a logistics center within the next five years.

■ News from the Chinese Subsidiary

- Aloe vera was planted on Aloecorp Aloe Vera Farm in Hainandao, China. Thus, the Farm opens a new chapter in its history.

■ Unigen-Russia News

- Procurement of materials required for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r the launch of *Scutellaria baicalensis* cultivation is underway in 2004. As the purchase of iron pip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material, has been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a major waterway will commence on March 22. (In order to secure iron pipes from Russia where basic materials are scarce, we had to cajole a crew working at a road construction site into providing the material to the farm.)
- On March 20, external inspections on various machinery and vehicles at the farm are planned. As the workers at the farm start to get busy, we are able to see Unigen Biomass in action.

※ *Univera Way* is always happy to hear the latest news from you. Please contact: ECONET@univra.com.

Club Activity News

■ Namyang Aloe

◆ In-line Skating Club "Rolling St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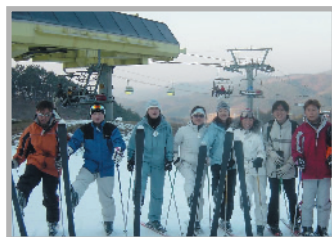
What's "Rolling Stones"? It is the name of our in-line skating club, and the name implies that we are such active skaters that our skates gather no moss. In winter, we enjoy skiing and snowboarding instead. We hold regular training sessions twice a month (every first and third Saturday) and we get together whenever we can spare the time.

Rolling Stones, which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4, 2003, has 21 members today.

We plan to go out on a road ride in April. Every member is looking forward to it.

(Attached photo: Group photo of in-line skating club, skiing) a Please check the attached file!!

▶ Anyone interested in joining the club, please contact Club Leader Youngsoo Park of the Seoul Sales Team.



◆ "Love-Sharing" Volunteer Team

"Love-Sharing" Volunteer Team, which consists of the staff of Namyang Aloe head office, shared joyful moments with children suffering from rare or intractable diseases at the Sinchon Severance Hospital on February 21. The staff members of the head office have been visiting the hospital every third Saturday since last October to arrange birthday parties, book rentals, and recreational programs for the sick children. This month, a birthday party was thrown for nine children, and four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recreational program.

Beginning last month, Director Hoyoung Sim of Namyang and his family as well as the staff of Namyang Aloe have been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enriching their lives while bringing some happiness to children who have been dealt a bad hand. Volunteering activities by "Love-sharing," which are now the most-awaited events to the sick children and their parents, is a continuing program.

▶ Anyone interested in joining in on the volunteering activities, please contact Junghoon Kim of the Corporate Culture Team at Namyang Aloe 02-460-8992.



◆ Soccer Club

Warriors on the greens in Chungcheongbuk-do.

Regular members and associate members combined, we are 30 strong, which means that about every male working at Namyang has joined our club. (Satisfying smile by the Soccer Club leader^^.) We hold intramural games from time to time and also schedule regular friendly matches with Unigen. If we play a game in Jincheon, the next game would take place in Byeongcheon. The greatest feature of these matches is that the inviting party treats the guest party to a meal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a game. In addition, we participate in the Deoksan Athlete's Fete (a community activity) to promote friend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For reference, there was a huge match with Unigen on March 20, 2004.

▶ Anyone interested in joining the club, please contact Club Leader Jaehyeon Lee of the R&D Center.

■ Namyang Company

◆ Alpine Club

The assemblage of mountain lovers.

We are a club that guards the health of the staff members as well as their families.

Since hiking on Jiri Mountain and Chuwol Mountain last year, we made a pilgrimage to Halla Mountain in Jeju-do, the beautiful tropical island off the southern coast of Korea, from March 27 through 28, 2004.

Are you interested in hiking? Why don't you join us on our next journey?

▶ Anyone interested in joining the club, please contact Club Leader Sunmi Choi of the Management Support Team.



◆ Fishing Club

Silent gatherings along quiet rivers, lakes, or the sea

Currently, we have 13 members - all male. We go fishing outdoors every month from April through October and enjoy indoor house fishing, trout fly-fishing, and lure-fishing in winter. In December, we also hold a year-end party to strengthen camaraderie among the

members. We go sea fishing especially in the spring and fall. We'll have you know, we caught a whole truckload of giant hairtail and bass on the western and southern seas last year (and this is no fish tale since it was a rather small truck. Or was it a toy truck? I can't remember). In April of each year, we celebrate the first fishing outing of the year. We are planning our first fishing for this year on April 4 or 10. Fantabulous prizes await those who catch the biggest fish. If interested (in particular, female members will be treated like princesses), contact us!

▶ Anyone who is interested, please contact Club Leader Hongman Kim of the Production Planning Team

◆ Movie Lovers

We are famous movie stars once a month. The members foster friendship going to the latest movies with such leading actors as Donggeon Jang, SangU Gwon, Bin Won, etc.

We view movies of every genre including animation, SF, erotica, and drama. After watching "Taegukgi" in February, many felt they learned something new about Korean history.

▶ Anyone interested in joining the club, please contact Club Leader Jinyoung Kim of the R&D Center.



■ Unigen

◆ Bowling Club

The bowling club at Unigen is a group of people who like and enjoy bowling. The Club, which was founded on January 2, 2002, has 24 members ranging from the mid-20s to the early 40s.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Unigen by promoting friendship and solidarity among staff members. Although there is still a room for improvement because we have been an organized club for only a short time, we will continue to progress through consistent interests and efforts.

▶ Anyone interested in joining the club, please contact the Club Leader Jinyeo Cho of NCE Development Team.

◆ Soccer Club

The soccer club at Unigen, which was founded in January 2003, aims at sound health, stimulating working environment and social activities through unity and friendship among its members. The club has 18 members in total: 12 regular members and 6 associate members. It is expanding its activities to hold friendly matches with Namyang on a quarterly basis as well as with the soccer club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which is located near our company facilities.

▶ Anyone interested in joining the club, please contact the Club Leader Kyungseob Cha of Research Planning & Management Team.



A Warm Welcome to New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New Recruits in Jan. ~ Mar. 2004

◆ Namyang Aloe

- New recruits in March ... Bongho Kim (Sales Department), Ikpyu Jun (Education Department), Changsoo Lee (Sales Department)



◆ Namyang

- New recruits in January



Yongwoon Park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Seunghwan Yoo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Dongmi Seo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Chandae Jung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Beomsoon Shin (Production Planning Team)



Younjin Kim (Management Planning Team)

▶ When you run into the new recruits, give them a warm welcome and help them get familiarized with the new environment. In the next issue, look for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new ECONET family members.



Editorial Comments

- ◆ The newsletter *Univera Way* - the emblem and history of the company!
My one and only thought was "How could we make this better?" There was a great deal of anxiety since this was the first attempt. However, thanks to the contributors representing each subsidiary as well as a host of other silent supporters, the first issue of "*Univera Way*" has finally seen the light of day. I hope the newsletter serves as a useful medium in allowing subsidiaries to reach out to each other under the framework of ECONET. Your continued keen interest, active participation, and candid comments will be greatly appreciated. Once again, my deepest gratitude for all the support for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Univera Way*." Thanks.
..... **KyoungAh Oh, Secretary / Straegy and Planning Office of Namyang Company / Korea / Editor-in-Chief**
- ◆ I am delighted to be a part of this newsletter, which shares the news of Namyang Aloe with the rest of the Group and allows us to get better acquainted with each other.
..... **JeongAh Park, Team Manager/ Customer Satisfaction dept of Namyangaloe, Inc./ Korea / Reporter**
- ◆ My deepest apologies for being not much help to the editor-in-chief.
Since our network is up and running now, I'll be a correspondent delivering both the hottest and coolest news.
..... **Junghoon Kim, Staff / Culture Department of Namyangaloe, Inc./ Korea / Reporter**
- ◆ I regret that I couldn't do better. I am really apologetic to those have done much better than I. The experience was very significant to me personally as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think about loyalty to the company and where I stood.
..... **JinYoung Kim, Researcher / Research Institute of Namyang Company / Korea / Reporter**
- ◆ I believe the publication of a newsletter will enhance communication among affiliates. In particular, it will be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to staff members who joined the company after the spin-offs. I'll keep on tracking down all the action unfolding at Namyang.
..... **SungWon Yun, Management Asistant / Dept Team of Namyang Company / Korea / Reporter**
- ◆ I am really grateful to have this chance to contribute as a reporter for *Univera Way*. I may stumble at first because I am new at this. However, I'll try my best to become a reporter who contributes to the prosperity of the company.
..... **YoungJoo Hong, Staff of Unigen, Inc./ Korea / Reporter**
- ◆ I am delighted to have been chosen as a company reporter. I believe that *Univera Way* will be a helpful guide to the path of common prosperity of ECONET. Many thanks to those who spared no efforts to bring out the first issue to the world.
..... **JaeYoung Choi, Marketing Manager of Unigen, Inc. / Korea / Reporter**
- ◆ I am confident that the publication of this first issue of *Univera Way* will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subsidiaries to understand and value each other.
..... **Joseph Kim, Operation Management Team Leader / Chief of Staff of ALOECORP, Inc./ USA / Reporter**
- ◆ Congrat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ECONET! The publication is like warm sunlight, a fresh breeze, and blossoming flowers. May the newsletter thrive on the news of ECONET families, brilliant wisdom of life, and a sense of camaraderie!
..... **Yohan Lee, Accounting Manager, UPI/ USA / Reporter**
- ◆ Many many congratulations on the launch of the "*Univera Way*" newsletter. I sincerely hope it serves as a medium to exchanges useful information and knowledge among affiliated companies.
..... **Byung-il Sohn, Financial Analyst of MaxCell BioScience, Inc. d / b / a Oasis Wellness Network. / USA / Reporter**
- ◆ Congratulations on the commencement of the "*Univera Way*" newsletter!!! May our global ECONET group of companies experience the warm and bright culture the "*Univera Way*" brings to us - only one true way. I am ecstatic!!!
..... **Melody Kim, Director of Finance of Univera, Inc./ USA / Reporter**
- ◆ I am so pleased to have access to a channel for communication with various affiliates and overseas subsidiaries, which are all members of our huge family. You'll be hearing a lot of news from China. Let's celebrate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issue!
..... **YoonSup Song, , Secretary of Hainan Aloecorp & Namyang / China / Reporter**
- ◆ I feel highly honored to have been appointed as the Russian correspondent for *Univera Way*.
Despite the poor telecommunication system in Russia, I'll do my best to deliver the hottest news from Russia.
..... **Jenya Kim, Interpreter & General Affairs Unigen Russia/ Russia / Reporter**

식물에서 찾은 생명의 희망을 유니젠이 전해 드립니다



길가의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유니젠에선 소중한 생명의 희망으로 바뀝니다.

유니젠은 전세계에 분포한 여러 식물로부터
인간에게 유용한 성분을 탐색하여 기능성 신소재 및
제품으로 개발하는 생명과학 회사입니다.



녹색체크를 해보면 알로에의 진실이 보입니다

✓ 열대 토양에서 자랐는가?

알로에는 남양알로에의 멕시코 탐피코 농장처럼,
원산지인 열대지방에서 자라야 제대로 된 알로에가 됩니다

✓ 채취 후 6시간 안에 처리했는가?

채취 후 6시간이 지나면 유효성분이 떨어지는 알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TTS(Time, Temperature, Sanitation)공법을 사용합니다

✓ 특허는 받았는가?

알로에 신약 개발 연구(CAP Project)로 여러가지 성분을 밝혀내고
국내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녹색체크란?

고객께서 최상의 알로에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남양알로에가 개발한
좋은 알로에의 기준입니다

알로에는 다 비슷한 줄 알았어요, 녹색체크하기 전까진!

어떤 알로에가 정말 좋은 알로에인지,

왜 남양알로에를 과학알로에라 부르는지,

녹색체크해보니까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녹색체크해 보세요, 건강을 생각하세요

**자연에서 한번, 과학으로 또 한번!
두번 키운 알로에가 남양알로에입니다.
알로에 진실, 남양알로에**

- 남양알로에 고객센터전화(무료) 080-022-7575
- 남양알로에 전국대표전화 1588-1976



창간호 특집 “유니베라 웨이” 6행시 이벤트!!

“유니베라 웨이”

나도 한 수 지어봐?

시도 짓고 푸짐한 상품도 타고!!



- 1등 : 사내 제품 10만원 상당 (1명)
- 2등 : 사내 제품 5만원 상당 (2명)
- 3등 : 사내 제품 3만원 상당 (3명)

- ♣ 참여방법 : 4월 20일 까지 ECONET@univera.com로 보내주세요.
- ♣ 정답자는 다음호에 발표.

보너스 퀴즈!

이 사람 누구일까요?

힌트 : 유니베라웨이 소식지에 정답이 있습니다.

♣ 정답자

파리바게뜨 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 3명

♣ 참여방법 : ECONET@univera.com로 보내주세요.

♣ 기 한 : 4월 6일 ~20일 까지.



이번 창간호를 읽고 아쉬웠던 부분 또는 좋았던 부분과 다음호에 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ECONET@univera.com로 언제든지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ivera Way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